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 분석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학년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tatus of Use of Picture Books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 Focused o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for 1st and 2nd Grade
Cluster in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강 민 정

2015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 분석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학년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tatus of Use of Picture Books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 Focused o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for 1st and 2nd Grade
Cluster in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강 민 정

2015년 2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 분석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학년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tatus of Use of Picture Books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 Focused o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for 1st and 2nd Grade
Cluster in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강 민 정

2014년 11월

강 민 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12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고찰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0
1. 그림책의 개념 및 특성	10
2. 초등 국어 교과서의 구성	22
3. 그림책의 국어 교육적 가치와 활용	33
III. 국어 교과서의 그림책 제재 활용 실태 분석	38
1. 그림책 제재 수록 양상	40
2. 그림책 제재 활용 양상	49
3. 시사점	104
IV. 요약 및 결론	106
참고 문헌	108
ABSTRACT	110

표 목 차

<표 II-1> <듣기·말하기> 영역 내용 체계	24
<표 II-2> <읽기> 영역 내용 체계	24
<표 II-3> <쓰기> 영역 내용 체계	25
<표 II-4> <문학> 영역 내용 체계	25
<표 II-5> <문법> 영역 내용 체계	25
<표 II-6> 1-2학년군 성취 기준	27
<표 II-7> 1-2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27
<표 II-8> 내용 성취 기준의 교과서 배당 현황	28
<표 II-9>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자료의 예	29
<표 III-1> 그림책 수록 단원과 관련 성취기준	42
<표 III-2> 그림책 수록 단원의 성취 기준 정리	43
<표 III-3> 교과서 그림책 수록 현황	46
<표 III-4> <책이 꿈지락꿈지락>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글 비교 ...	79

그림 목 차

[그림 II-1] Sipe의 기호 삼각형 모형	17
[그림 II-2] <그림책 노란 우산>	20
[그림 III-1] 그림책 <재미있는 내 얼굴>	51
[그림 III-2]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59
[그림 III-3]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60
[그림 III-4] 1-2 국어 교과서 193쪽	61
[그림 III-5] 1-2 국어 교과서 198쪽	62
[그림 III-6] 그림책 <앗! 따끔!>	70
[그림 III-7] 그림책 <앗! 따끔!> 표지	71
[그림 III-8] <앗! 따끔! > 교과서 활동 그림	74
[그림 III-9] <앗! 따끔! > 교과서 활동 그림	74
[그림 III-10] 책이 꼼지락꼼지락	76
[그림 III-11] 책이 꼼지락꼼지락	77
[그림 III-12] 책이 꼼지락꼼지락 속표지	77
[그림 III-13] 그림책 <책이 꼼지락꼼지락>	78
[그림 III-14] 그림책 <책이 꼼지락꼼지락>	78
[그림 III-15] 2-1 교과서 42쪽 활동 3의 대본	85
[그림 III-16] 그림책 <오소리네 집 꽃밭>	88
[그림 III-17] 그림책 <기차 기차>	92
[그림 III-18] 그림책 <바람이 좋아요>	95
[그림 III-19] 그림책 <설빔, 여자아이 고운 옷>	99
[그림 III-20] 그림책 <설빔, 여자아이 고운 옷>	100
[그림 III-21] 그림책 <설빔, 남자아이 멋진 옷>	100

국 문 초 록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 민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전 제 응



본 연구는 그림책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에서의 그림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책의 특성은 글과 그림이 통합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서 그림책이 활용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림책이 교과서 제재 형태로 변용되는 것, 두 번째로 그림책 제재를 학습하기 위한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국어 교과서에서의 그림책 활용이 그림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어 교육에서 그림책을 교육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그림책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밝히고 초등 국어 교과서의 구성 방식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림책의 국어 교육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복합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 장르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그림책의 특성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 국어 교과서의 구성 방식에 따라 다른 성취 기준들과 함께 교과서 단원에 반

영되었다. 그리고 그림책이 국어 교과서 및 국어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크게 국어 교과서의 영역 구분에 따라 국어 활동(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 문학 영역, 문법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Ⅲ장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그림책 제재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 1-2학년군 국어 교과서이다. 우선, 그림책 제재가 원작 그림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림, 글과 그림의 관계, 파라텍스트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원작 그림책에서 그림책 제재로 변용된 사례들을 유형화하였다. 두 번째로는 그림책 제재를 바탕으로 구성된 활동을 분석하였다. 활동 분석은 성취 기준 및 학습목표 수준, 제재 수준, 학습자 수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수준에서 활동의 적합성을 논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그림책 제재가 원작 그림책과 다르게 변용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그림책 전체의 글과 그림을 수록한 경우, 둘째, 그림책의 일부의 글과 그림을 수록한 경우, 셋째, 두 장면 이상을 한 장면으로 합친 경우, 넷째, 글과 그림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용되어 수록된 그림책 제재를 활용한 교과서 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둘째, 문학 영역의 활동에서는 글과 그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이외의 영역에서는 글과 그림을 따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학습자 수준에서 난이도와 흥미도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에서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림과 그림의 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히 변용하거나 변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할 그림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그림책의 복합양식적 특성, 문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구성한다면 그림책을 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책을 국어 교육 자료로서 활용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 개정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그림책 제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에서 나타난 그림책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져야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가 교실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분석과 적용 가능한 수업 모형과 같이 수업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주요어 : 그림책, 그림책 제재, 그림책의 변용,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교과서, 복합양식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책을 이르는 말이다. 그림책의 정의와 분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점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글과 그림은 서로 다른 의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림책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의미 전달 방식이 모든 그림책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림책에 따라 글과 그림의 비중이 다르고, 각기 역할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결합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와 같이 그림책은 그림이 없는 책들에 비해 글의 비중이 적고 그림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글을 읽지 못하거나 글 읽기가 서툰 아동들의 수준에 알맞은 책으로 인식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모든 그림책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책의 특성이 아동들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 교육자들이 그림책을 선호한다.

세계 최초의 그림책인 '세계도회' 역시 아동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처럼 글과 그림을 함께 제시하는 그림책은 처음 생겨났던 시절부터 아동들의 흥미와 수준에 알맞은 교육 자료로 여겨져 왔다. 현재에 들어서도 시중 서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림책의 대부분은 아동이나 유아용 도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책들은 교사, 학부모들에 의해 아동 교육 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방법은 단순하게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성인이 소리 내어 아동에게 읽어주는 것부터 감상 지도, 미술 교육, 과학 교육 등 분야도 다양하다. 같은 그림책이더라도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서 교육 방법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책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기 이전에도 그림책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한 교사들은 그림책을 국어 과목을 비롯한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이전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등에 활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초등국어교과연구회,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은 여러 교사들이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한 경험과 연구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는 등,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이 1~2학년군 교과서에만 해도 10권 이상이며 1학년 1학기 5단원은 그림책을 읽고 감상하는 것이 주된 활동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그림책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서에서 그림책들은 그 특성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책이 교과서 속 하나의 텍스트로 들어오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특성들이 학습자 즉, 기존의 그림책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특성 상 분량과 판형이 제한적이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편집되고 부분 발췌되어 수록된 그림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림책 속 각각의 그림은 이어지는 그림을 위한 맥락을 만들어 내며, 어떻게 다음 그림을 지각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스키마가 된다.(Nodelman, 1988) 교과서의 분량이나 판형 조절을 위해 잘려나가고 합쳐진 그림들 때문에 학습자는 스키마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림 뿐만 아니라, 글 역시 중간 부분이 잘려나가거나, 서로 다른 그림과 있어야 할 글이 하나의 그림에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림책은 교과서 속으로 들어오면서 본래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본래의 특성이 희미해진 그림책을 활용하는 학습 활동 역시,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림책이 지닌 특성을 잘 반영하여 교과서에 수록을 하였더라도 막상 학습 활동이 그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본 연구는 국어 교과서에서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어 교과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책의 활용의 의미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그림책을 국어 교과서의 제재글로 수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록된 제재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과 학습 활동을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까지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은 것인지 고려하는 수준에서 세 번째 단계를 다루게 될 것이다. 즉, 기존에 도서

로 출간된 그림책이 ‘교육’ 또는 ‘학습’이라는 목적에 의해 국어 교과서의 틀 안으로 편입된 단계,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변형된 그림책이 성취기준, 학습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한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활동이 학습자에게 적합한지 예측해보는 수준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실 수업에서 교과서를 활용하는 상황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위하여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그림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과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활동을 분석하는데 중심을 둔다. 따라서 그림책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림책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연구

그림책의 특성 연구는 그림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호학적 관점, 매체 언어의 관점, 현대 문학의 한 장르로서 바라보는 관점 등이 있다.

신혜선(2007)은 기호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유아 그림책을 분석하였다.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유아그림책이 내포하는 의미와 유아들이 생성하는 의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유아들의 의미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다. 인지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험이 적어 배경지식이 부족한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아그림책이 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유아들이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책을 제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나, 분석한 모든 그림책이 반드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배경지식이 불충분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정선(2012)은 이중서술체계와 매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림책의 의미작용을 연구하였다.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언어체계와 그림책을 책으로 존재하게 하는 물리적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책을 영화와 만화와 같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독자적인 성격을 확립하는지 논하였다. 그러나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전달보다 그림에 치중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매체들과의 비교에서도 그림책보다는 영화, 만화의 관

점에서 그림책이 이들 매체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점이 아쉽다.

신세니(2011)은 포스트모던 그림책 파라텍스트의 특성 및 기능을 연구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반영한 그림책들이 이전 시대의 그림책에 비해 보다 더 아동문학에 유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림책의 구성 요소 중 파라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직접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파라텍스트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관찰 분석하였고, 유아들이 그림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신장하고 적극적으로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도록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파라텍스트라는 그림책의 일부분에 집중하여 그 기능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한편, 파라텍스트가 내용텍스트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분리하여 밝히기 어렵다는 점과 언어적 표현이 서툰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아의 반응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나.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그림책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주로 국어과와 미술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과에 비해 미술과에서는 그림책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그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국어과의 매체 언어, 복합 양식 문식성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박연순(2010), 정미희(2010), 김수향(2012)의 연구를 살펴 보겠다.

박연순(2010)은 그림책을 활용한 국어과 통합교재 구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언어 기능별로 분리되어 실제 언어생활의 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어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 통합적 국어교재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림책을 중심으로 국어교과의 영역 간, 교과 간, 매체 간 통합 지도 교재를 구성하였다.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가 통합 교과서인만큼,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문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층위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통합에 치중한 나머지 그림책 장르의 특성에 대한 지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정미희(2010)은 그림책을 활용한 초기 문자 지도 과정을 연구하였다. 문자 지도 방법의 여러 관점 중 균형적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림책의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균형적 접근법에 적절한 지도 자료로서 그림책의 특성을 밝히고,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초기 문지 지도 과정을 설계하고 실제 아동들에게 투입하였다.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아동의 향상도를 측정하여 효과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경우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어 교과 수업 중에 실현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김수향(2012)은 초등미술교육에서 시각적 문해력 지도를 위한 그림책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시각적 문해력 지도의 필요성을 밝히고, 시각적 문해력 지도를 위한 자료로서 그림책의 가치를 논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림읽기 3단계 모형을 구안하고 직접 적용해보았으나 비교군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으며, 시각적 문해력은 국어 교육의 복합 양식 문해력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교과서의 수록 제재 또는 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 교과서 학습 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교과서 수록 제재 또는 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는 김경미(2012), 이영선(2013), 임덕연(2001)의 연구가 있고, 교과서 학습 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이해리(2009), 최병철(2012)의 연구가 있다.

김경미(2012)는 공익광고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어떻게 변용되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광고 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현장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수업 후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공익광고의 변용 사례 분석을 통해 변용 원리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 광고를 교과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점을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이영선(2013)은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상세화 되는 과정 및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일치도를 살펴 보았다. 교육과정은 거시적 변환을 거쳐 성취 기준, 단원 목표, 학습 목표로 상세화 되고, 학습 목표가 미시적 변환을 거쳐 학습활동으로 구체화 되는 흐름을 정합성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 따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5, 6학년 읽기 교과서의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여부를 분석하였

다. 교육과정이 일관된 흐름에 맞추어 교과서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교과서 심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덕연(2001)은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중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의 원본과 개작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화 교육의 아동문학적 위상과 국어 교과서에서의 동화의 위치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동화 교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의 동화 제재에 집중하여 분석하였고, 원작이 개작이 이루어지면서 작가의 의도나 본래의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해리(2009)는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 동화 제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대상으로 그 적절성을 분석하고 동화 지도의 개선 방안을 알아보았다. 학습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동화 제재를 이용한 학습 활동의 적절성 분석 기준을 수립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 활동의 적절성 분석 기준을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기반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선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병철(2012)은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의 시 단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활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활동 구성 원리를 다섯가지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시 단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논문 주제가 시 단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학습활동 구성 원리에 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개정교육과정 초등 1-2학년군 국어 교과서에서 그림책이 수록된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 활동이 그림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려는 연구이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그림책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나 그림책이 지닌 고유의 특성과 그 교육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책이 다른 문학 제재들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의 그림책 제재는 그 특성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그림책 제재를 활용한 학습 활동 역시 그림책의 특성을 학습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그림책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그림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림책 고유의 특성들을 상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고찰하고,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어 교과서의 그림책 제재 활용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다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의 수록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림책이 국어 교과서 수록 양상을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림책 제재가 주로 어떤 영역,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수록되어 있으며, 어떠한 학습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그림책 제재의 활용 양상 및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1-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각각의 그림책 제재를 원작 그림책과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변용을 거쳐 교과서에 수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된 학습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그림책 제재를 분석하는 기준은 II장에서 살펴본 그림책의 개념 및 특성에 의해 글과 그림의 관계, 배치 등에 근거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원작 그림책을 교과서에서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한 학습 활동 분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성취 기준과의 관련성, 둘째, 그림책 제재의 특성 반영 여부, 셋째,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와의 부합 여부이다. 성취 기준과의 관련성은 각 단원에 설정된 성취기준과 각 단원의 단원 목표, 그리고 그림책 제재가 수록된 해당 차시 목표를 학습 활동과 연결 지어 분석할 것이다. 그림책의 특성 반영 여부는 그림책 제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학습 활동이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활동인지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1-2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 1-2학년 학생들의 학습 능력, 언어 능력, 흥미에 부합하는지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결과를 통하여 그림책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그림책의 특성을 살려 제재를 수록하고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그림책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음은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서는 연령, 분야를 아우르는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의 결론이다. 이 장에서는 그림책의 개념을 밝히고 이렇게 정의된 그림책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지 밝힘으로써 그림책을 국어 교과서의 교육 자료로 수록하기 위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1. 그림책의 개념 및 특성

가. 그림책의 개념과 구성

1) 그림책의 개념

그림책은 단순히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된 책을 통칭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개별적인 문학 장르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Caldecott은 처음으로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함께 읽혀져야만 하는 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2004, 현은자 외) 그의 그림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 모두 이해해야 한다. Nodelman(1988, 김상욱, 2011)은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연속되는 그림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글과 결합하거나 글 없이 정보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라고 하였다. 그림에 비해 글은 단순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글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책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지닌 정보는 필수적이다. Shulevitz(1996, 재인용)는 그림책에서 글은 그림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림도 글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며, 글과 그림은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대위적 관계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림과 글이 있는 책이라고 해도 글과 그림의 관계에 따라 그림책과 그림책이 아닌 책을 정확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글에 제시된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서로 정보를 나뉘가지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그림책인 것이다. 종합하면,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각자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그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 장르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그림책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림책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은자(2004)는 그림과 글의 관계에 따라 엄밀한 의미의 그림책과 그림이야기책으로 구분하면서, 이 둘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글과 그림이 중복된 정보를 표현하면서도 훌륭한 그림책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작가들이 더 좋은 그림책을 제작하고, 독자가 더욱 그림책을 즐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논의한 그림책의 정의는 그림책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림책에 대한 가치를 판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책들을 살펴보면,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를 제작할 때에는 엄밀한 의미의 그림책만을 선별하기보다는 교육 자료로서 그 내용이나 수준이 적절한지를 고려하여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그림책 작가들과 연구자들은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 글과 그림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거나 글과 그림이 의미가 중복되더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책을 모두 넓은 의미의 그림책으로 보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그림책의 구성

그림책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은 글과 그림이다.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이 결합하여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글과 그림 중 하나만을 이해해서는 그림책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그림에 대해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글과 그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림책이 책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소인 파라텍스트(paratext)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 그림책의 그림

그림책에서 그림이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Nodelman(1988, 김상욱 역, 2011)은 그림책의 그림이 함축하고 있는 서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시각적 양식들과 의미 작용의

관습적인 약호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아주 긴요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그림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는 선, 색, 형태, 명암, 질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형성하는 구성 원리와 그림의 구도에 대해 알아 보겠다.¹⁾

(1) 그림의 구성요소

① 선

선은 사물의 모양과 형태가 어떤지를 나타내주며 항상 보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으며 직선에는 수평선, 수직선, 사선이 있다. 수평선은 고요함이나 정지감을, 수직선은 활동성을, 사선은 동세를 연상시킨다.(남지현, 2012)

곡선은 유쾌함, 유연함, 운동감을 전달하며 활동적인 메시지 전달과 내용을 부드럽게 하는 우아함을 가진다. 선은 두껍고 짙은 경우, 그 메시지는 강하고 자신감을 드러내게 된다.(신혜선, 2007)

② 색

색의 기본적인 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로 구분된다. 색상은 감각에 따라 식별되는 색의 종류로 색깔 그 자체를 뜻한다. 색은 사람의 감각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색마다 그에 따른 감각과 감정도 다르다. 색상과 감각, 감정의 관계는 개인차가 있으나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을 바탕으로 색상은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금지, 경고, 위험, 정열 등을 떠오르게 하고, 흰색은 순결, 평화의 의미가 떠오른다. 각각의 색이 지닌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색과 함께 사용될 경우 전혀 다른 의미가 생성되기도 한다.

명도와 채도는 색이 지닌 의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의미한다. 명도가 높은 밝은색은 가벼운 느낌이 들고, 명도가 낮은 어두운 색은 무겁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같은 명도에서도 채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색의 분위기는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색은 대상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1) 신혜선(2007)은 그림이 하나의 기호복합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지각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며 그림의 구성요소, 구성 원리, 구도로 나누어 그림의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림의 요소와 구성 원리의 분류는 신혜선(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③ 형태

형태 또는 형은 그 외곽을 한정 짓는 색상과 명암의 변화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선들로 구성된 시지각의 영역이다.(재인용, 정우근, 2005) 형태는 형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색상이나 질감, 명암, 구성, 균형 등 모든 의미를 함축한다. 형태는 구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은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디에 배치시키느냐에 따라 의미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태는 대상의 바깥 테두리와 내부를 명확히 하며 점과 선 그리고 모양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나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통합된다.

④ 명암

명암은 밝고 어두움을 말한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움은 이차원의 평면에 그려진 그림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대상의 입체감은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⑤ 질감

질감은 사물의 표면적 특성을 말한다. 곱끄러운 종이나 험겘 같은 화면의 재질 즉, 표면적인 구조를 손으로 매만질 때 느끼는 촉감을 말한다. 그림책에서 실제 사물의 질감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 색, 명암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질감은 각기 회화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능과 감성을 제공한다. 첫째, 화면에 풍부함과 시각적 쾌감을 준다. 둘째, 정서적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셋째, 공간감의 효과를 느끼게 해준다.

(2) 그림의 구성 원리

① 통일감

통일감은 그림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된 전체로서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시각요소인 형, 색, 선, 명암들의 패턴은 한 작품의 다양한 표현들 속에 나타나게 되며 작가가 시각적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든 그것은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로 보이게 된다. 통일감은 전체 그림책의 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한 장면의 그림 안에서도 표현된다.

② 균형

균형이란 한 구조물에서 모든 힘들이 평형이나 균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힘

의 분산을 말한다. 이는 시지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람은 평형이 무너지면 반자의적으로 화면에 대해 평형 상태를 요구하게 된다. 그림의 형태에서 시야의 좌우 반쪽이 서로 똑같은 대칭을 '대칭적 균형'이라 하며, 그림이나 대상의 양쪽 면이 다르지만 균형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칭을 '비대칭적 균형'이라 한다. 그림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림의 구성요소나 대상은 물리적인 무게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무게가 작용하게 된다.

무게와 관계가 있는 조형요소들을 보면 첫째, 크기가 있다. 똑같은 것들 중에서도 더 크고 더 단단한 형상이 더 무서워 보인다. 둘째,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난색은 한색보다 강한 밀도의 색채로 약하거나 퇴색된 색채보다 더 무거워 보인다. 셋째, 위치이다. 형태가 중심점 보다 위에 있는 것은 중심점보다 아래에 있는 것에 비해 더 가벼워 보인다. 넷째, 관심이다. 심리적인 관심 그 자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다섯째, 대비이다. 대비에 의한 균형은 따뜻함이나 차가움과 같은 색채 간의 대립, 색채와 형상 간의 대립까지 포함한다.

③ 비례

비례란 부분과 전체 혹은 부분과 부분들 간의 크기에 대한 상호관계를 말한다. 시각적인 측면에서 크기가 면, 폭, 높이, 깊이 등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읽혀질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비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상들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산의 크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는 사람이나 나무, 바위 등이 함께 그려져야 한다. 독자들은 비례에 있어서 인습적으로 표현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왜곡'으로 지각하며 대상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비례를 통해 표현할 대상의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율동

율동이란 여러 요소나 패턴들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율동은 독자로 하여금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각을 예상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형, 색, 선, 방향 그리고 여러 선들 사이의 유사한 패턴의 공간상의 반복이나 색의 반복 또는 형의 반복 등이 율동에 해당된다.

(3) 그림의 구도

① 병렬식 구도

병렬식 구도는 작품의 가로 즉, 수평적 흐름에 중점을 둔 구도로서 일군의 군상들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이다.

② 대칭구도

대칭구도는 좌우대칭에 조금씩 변화를 더하여 화면 전체에 동적인 균형감을 만들게 되는데 이 때 단위요소를 반복하면서 변화를 주어 전체를 이루어 나간다.

③ 아치식 구도

터널 안과 바깥을 명암으로 대비시켜 마치 실외에서 창문을 통하여 실내를 보거나 반대로 실내에서 밝은 실외를 내다보는 듯한 구도로, 명암의 대비가 구도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④ 지그재그형 구도

일반적으로 근경에서 원경으로 눈발이 펼쳐진 들판이나 시골길 풍경에서 볼 수 있다.

⑤ C, S, Z형의 구도

이들의 문자 모양은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풍경화의 구도에 자주 이용된다.

나)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조합 자체가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글과 그림의 관계에 따라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양해진다. 글과 그림의 다양한 상호작용 관계를 대응관계, 상호보완 관계, 굴절 관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응관계

그림책에서 글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림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일치할 경우, 글과 그림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러나 글과 그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그림이나 글의 어느 한 쪽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곤 한다. 그림이 글보다 더 단순화되어 있는 경우를 축소, 그림이 배경이나 활동을 보다 더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를 정교화라고 한다.

(2) 상호보완 관계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서로 도움을 주며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글에 없는 것이 그림에 제시되기도 하고 그림에

없는 것이 글에 제시되기도 한다. 글과 그림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야 완전하게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상호보완 관계이다. 상호보완 관계는 다시 확장, 보충, 교차전진으로 세분화된다. 확장은 글에서 설명되지 않는 과정이나 상황을 그림이 자세하게 보여주며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대응 관계의 정교화보다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보충은 그림과 글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고 있어, 글과 그림이 서로 도와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관계이다. 교차전진은 사슬이 번갈아가며 연결된 것처럼 글과 그림이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3) 굴절 관계

글과 그림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관계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독자를 놀라게 하거나 이야기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글과 그림의 내용을 어긋나게 설정하는 경우이다. 굴절 관계는 아이러니와 대위로 세분화한다. 아이러니는 글과 그림이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이다. 대위는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이다.

다) 파라텍스트

파라텍스트는 물리적으로 텍스트의 외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텍스트의 안과 밖 사이의 지점에 존재하는 부분이다(Genette, 1991/1997, 재인용). 파라텍스트는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의 두 범주로 나뉜다. 페리텍스트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파라텍스트의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텍스트를 대표하며, 타이포그래피, 종이 선택, 표지, 판형과 같은 출판 상의 부분과, 저자명, 제목, 요약본, 헌정사, 제명, 서문, 간제목,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달리 에피텍스트는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파라텍스트의 부분으로, 출판가와 저자의 공적인 논쟁, 인터뷰, 출판 발표 등과 저자의 개인적인 논의, 일기, 반응 등을 의미한다.(신세니, 2011)

나. 그림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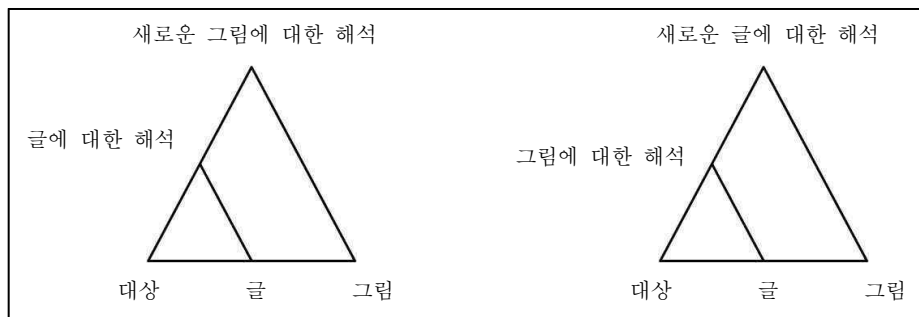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그림책들이 드러내는 고유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책과 종종 같은 장르로 여겨지는 동화, 삽화가 있는 이야기 책 등과 구별되는 특성을 밝힘으로써 그림책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그리고 그림책만의 독특한 특성을 밝히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 그림책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1) 그림책의 기호학적 특성

그림책을 글과 그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로 설명하기도 한다(신혜선, 2007).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독립적인 기호로 존재하지만 글과 그림이 상호 의존 혹은 전제를 통해 메시지를 산출하기 때문에 글과 그림의 결합 자체가 또다른 하나의 기호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그림책 전체가 하나의 기호로 독자에게 의미 작용을 통해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렇게 글과 그림이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기호로 결합하면서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책을 글과 그림으로 분리시켜 볼 수 없는, 제3의 텍스트인 ‘이코노텍스트(iconotext)’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박일우, 1995, 재인용). 이코노텍스트란, 글과 그림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하나의 단위로 그 내부에서는 글도 그림도 보조적인 기능이나 삽화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책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N.Nerlich, 1990, 재인용). 즉,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텍스트가 상호작용하면서 결합하게 되면 본래 가진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기호가 된다는 것이다.

[그림 II-1] Sipe의 기호 삼각형 모형



Sipe(1998)는 기호 삼각형 모형을 글과 그림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는지 설명한다. 글은 대상을 해석하여 나타내는 기호의 역할을 하며, 그 기호는 다시 그림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가지게 된다. 그림 또한 마찬가지로 대상을 해석하는 기호가 되며 글로 표현되는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라는 서로 다른 기호 체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림책이 전달하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을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곧 이코노텍스트라는 제3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코노텍스트의 성격을 가진 그림책을 읽고 활용한다는 것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텍스트를 동시에 읽어내고 그 관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은자 외, 2004)

2) 그림책의 복합양식적 특성

그림책을 복합 양식 텍스트로 보는 관점은 이전의 기호학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그림책을 여러 기호 체계가 어우러져 의미를 전달하는 복합적인 매체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복합 양식 텍스트는 복합 매체 텍스트라고도 하며,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매체에 의해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 매체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간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기호 체계(음성, 문자, 영상)로서의 매체이다. 두 번째는 앞의 기호 체계를 담은 그릇(신문, 잡지, 텔레비전, 그림책, 인터넷)으로서의 매체이다.²⁾ 본 연구의 복합 매체 문식성에서 다루고자 하는 매체는 첫 번째 차원의 매체이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영상 언어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내는 의미를 수용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복합 매체 문식성이다. 그림책은 영상 언어로 볼 수 있는 그림 언어와 문자 언어의 복합체이다.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림책 읽어주기'이다. 이 방법으로 그림책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 언어를 동시에 접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책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 일이다. 사물의 명칭을 그림으로 나타낸 교과서인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³⁾는 그림책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초등 언어 교과서로 언어를 사물과

2) 옥현진(2002)은 매체의 개념은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이 중 초등 국어과 교육과 관련되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만 한정하여 인용하였다. 여기서 인용하지 않은 나머지는 한 가지 차원의 매체란, 먼 거리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운반체(공기, 전파,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ROM, 디스켓 등)로서의 매체이다.

3) 세계도회(1658). *Orbis Sensualium Pictus*. 코메니우스 저.

결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구체화해서 보여주었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과 그림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문자 해독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그림책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림책의 흥미로운 그림은 어린이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에 적절하며, 글의 양과 전체 분량이 짧기 때문에 읽기에 부담이 적다. 그리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림책이 다루는 다방면의 소재들은 그들의 교육 목적에 알맞게 선정하여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그림책이 어린이 교육 자료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김정미(2014)는 그림책의 복합양식적 특성을 밝히며 문식성의 개념이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림책이 이러한 복합양식 문식성을 지도하는데 효과적인 교육 자료임을 논하였다. 김상욱(2006)은 그림책이 시각적 문해력을 더불어, 입문기 문해력의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담화 장르라고 하였다. 김수향(2012)은 그림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글 뿐만 아니라 그림을 읽는 것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며 시각적 문해력 지도를 위한 그림책 활용의 교육적 가치를 밝혔다. 또한 박숙현(2006)은 시각화 능력을 포함한 시각적 사고는 학습자가 여러 사고영역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언어적 텍스트의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므로 그림읽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의 지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림책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즉 텍스트는 크게 글과 그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글과 그림이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정보를 나눠 가지기도 한다. 이렇게 글과 그림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텍스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은 복합양식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을 읽는 독자,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그림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합매체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된다.

3) 그림책의 문학적 특성

그림책의 문학적 특성은 그림책의 분류 중 판타지 그림책, 사실주의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과 같은 종류에 한정된 특성일 수 있다. 이러한 그림책을 통틀어

‘이야기 그림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⁴⁾

그림책을 문학, 특히 아동문학으로 보는 관점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이며 많은 그림책 개론서들이 그림책을 아동 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다. (현은자, 김세희, 2005) 아동문학은 동심을 다루는 문학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와 같이 동심을 향유하고자 하는 어른을 위한 문학 장르이다. 그림책이 아동문학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많은 종류의 그림책이 아동의 동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아동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모든 그림책이 아동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그림책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학적 특성을 지닌 ‘이야기 그림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그림책의 문학적 특성, 혹은 아동문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책, 특히 이야기 그림책은 아무리 짧고 간결한 내용이더라도 문학적 요소인 주제, 인물, 플롯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문학 연구는 주로 그림책의 글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글 없는 그림책조차도 연속되는 그림들이 전체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 노란우산(류재수, 2001)과 같은 경우에는 글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진행한다. CD가 함께 들어 있어, 음악을 들으면서 볼 수 있으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오직 그림 뿐이다.

[그림 II-2] 그림책 <노란 우산>



문학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언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 언어로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그림책은 문학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앞의 그림책의 기호학적 특성, 복합양식적

4) 그림책의 종류는 크게 정보그림책, 이야기그림책, 시 그림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보그림책 안에는 개념, 수, 문자, 지식 등 담아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김상욱, 2006)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림책의 그림 역시 글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감정을 담고 있는 언어이다. 때문에 글보다 그림의 비중이 큰 그림책이나, ‘노란 우산’과 같이 글이 없는 그림책조차도 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림책의 그림은 단순히 문자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림이 단독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이자 언어이다. 또한 글과 그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또 다시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림책은 그 특유의 언어와 의미 전달 방식을 지닌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독자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Sipe의 기호 삼각항과 같이 그림도 함께 읽어 낸다. 글을 먼저 읽는지, 그림을 먼저 읽는지에 따라 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그림책의 내용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글이 없는 그림책 또는 글의 비중이 적은 그림책의 경우에는 독자 요인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글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독자가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이다. 글이 존재하는 부분일지라도 그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독자의 의미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현대문학의 독자반응 이론은 다양한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여 문학을 자가에 의해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이 첨가됨으로써 비로소 완결되는 미완의 텍스트로 본다.(현은자 외, 2004)

2. 초등 국어 교과서의 구성

가.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하며 국어 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된다. 2009 개정 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가 통합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교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 의식을 높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한다. ...

‘국어’ 교과는 국어 활동(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문법),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며,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p.3)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의 목표를 살펴보면 이전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달리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 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최근 창의성,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어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의 내용에서도 변화가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어과 교과가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인성을 강조하는 교과, 가치 교과로서의 성격과 목표가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수진, 2014, p.11)

국어 교과의 목표는 학교급별 목표나 학년별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대신,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학년군제가 적용되어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7-9학년군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성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각 학년군별 세부 내용으로 학년군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 국어 자료의 예를 제시하여 학년군에 따른 위계성과 수준의 적절성,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은 이전의 6개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서 5개 영역(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각 영역별 내용 체계는 국어 교육이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 의해 실제 범주를 1차 조직자인 상위 범주로,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내용 요소 범주를 2차 조직자인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 실제 범주는 성취 기준 선정 범주로,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국어 활동을 의미한다. 지식, 기능, 태도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내용 요소는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한다. 실제 범주는 내용 요소의 범주를 규정하고 통어하므로 내용 요소는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교육부, 2014, p.9)

다음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체계이다.

<표 II-1> <듣기·말하기> 영역 내용 체계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목적의 듣기·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말 - 설득하는 말 - 친교 및 정서 표현의 말 · 듣기·말하기와 매체 		
지식	기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말하기의 본질과 특성 · 듣기·말하기의 유형 · 듣기·말하기와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 · 표현과 전달 · 추론과 평가 ·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 ·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와 중요성 · 동기와 흥미 · 공감과 배려 · 듣기·말하기의 윤리



<표 II-2> <읽기> 영역 내용 체계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목적의 글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전달하는 글 - 설득하는 글 -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 읽기와 매체 		
지식	기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의 본질과 특성 · 글의 유형 · 읽기와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 및 문장의 이해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와 중요성 · 동기와 흥미 · 읽기의 생활화

<표 II-3> <쓰기> 영역 내용 체계

실제 · 다양한 목적의 글 쓰기 - 정보를 전달하는 글 - 설득하는 글 -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 쓰기와 매체		
지식 · 쓰기의 본질과 특성 · 글의 유형 · 쓰기와 맥락	기능 · 글씨 쓰기 · 쓰기의 계획 · 내용 생성과 조직 ·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태도 · 가치와 중요성 · 동기와 흥미 · 쓰기의 윤리 · 쓰기의 생활화

<표 II-4> <문학> 영역 내용 체계

실제 · 다양한 갈래의 문학 -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 수필, 비평 · 다양한 매체와 문학		
지식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갈래 · 문학 작품의 맥락	기능 · 작품의 이해와 해석 · 작품 감상 · 작품 비평과 소통 · 작품 창작	태도 · 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 문학에 대한 흥미 · 문학의 생활화

<표 II-4> <문법> 영역 내용 체계

실제 · 국어 문화와 자료 - 구어 자료, 문어 자료 · 다양한 매체와 국어 자료		
지식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구조 · 국어의 규범	기능 · 국어의 분석과 탐구 · 국어 지식의 적용 ·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	태도 ·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 범주에 속해 있었던 ‘매체’ 요소가 ‘실제’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의 의미는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림책을 복합양식 텍스트로 보는 관점에서 매체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매체’가 ‘지식’ 범주에 속해 있으므로 그림책을 학습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림책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을 위해서 학습자가 인지해야 하는 여러 언어 매체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즉, ‘매체’가 차지하는 영역이 ‘지식’에 한정된 만큼, 국어 교육에서 복합양식으로서 그림책의 영역 또한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제’는 국어 활동의 목적(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과 국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매체’를 하위에 두고 있다. 국어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매체와 관련되어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즉, 매체가 ‘실제’ 범주에 속하게 됨으로써 지식 뿐만 아니라 기능, 태도까지 매체와 관련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매체가 아우르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면서 국어 교육에서 복합양식 텍스트로서의 그림책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학으로서 그림책과 관련하여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는 특별한 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동안 국어 교육에서 그림책을 시, 소설, 극 등과 같이 별도의 갈래로 구분 짓기 보다는 그림책에 나타난 ‘글’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시, 소설 등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내용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림책이 문학 장르로서 그 입지가 확고하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두드러지게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문학’ 영역의 ‘실제’ 범주에 ‘다양한 매체와 문학’과 같이 매체 관련 요소가 포함됨으로써, 그림책으로 표현된 문학 작품을 문학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성취 기준을 살펴 보겠다. 국어과 교육과정을 국어 교과서를 구현할 때, 교육과정의 학년군 설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용 성취 기준을 ‘학년 중점 성취 기준’과 ‘학년 지속 성취 기준’으로 구분 지었다. ‘학년 중점 성취 기준’은 해당 학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을, ‘학년 지속 성취 기준’은 해당 학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학년 간에 지속적으로

로 다루는 성취기준을 선정한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1-2학년군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과 ‘내용 성취 기준의 교과서 배당 현황’, ‘국어 자료의 예(1-2학년군)’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6> 1-2학년군 성취 기준

1-2학년군 성취 기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초보적 국어 능력을 갖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어 생활에 즐겁게 참여하며 국어 생활에 대한 관심을 자기 주변에서 찾는다. 대화와 발표 상황에 바른 자세로 즐겁게 참여하고, 글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으며, 자신의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쓴다. 기초 어휘를 익히면서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표 II-7> 1-2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영역	영역 성취 기준
듣기·말하기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며,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	글을 소리 내어 유창하게 읽으며,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글을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쓰기	글자를 익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단한 글로 표현하고, 쓰기가 자신을 표현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안다.
문법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알고 낱말과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표현하는 초보적 지식을 익히며 국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다.
문학	발상과 표현이 재미있는 작품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표 II-8> 내용 성취 기준의 교과서 배당 현황

영역	성취 기준	1학년	2학년
듣기 · 말하기	(1)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	○
	(2)듣는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	
	(3)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	
	(4)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
	(5)상황과 상대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고,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인사를 나눈다.	●	
	(6)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		●
	(7)상대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		●
	(8)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	●
읽기	(1)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2)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	
	(3)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	
	(4)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
	(5)글의 내용을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
	(6)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	●
쓰기	(1)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	
	(2)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	●
	(3)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
	(4)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을 글로 쓴다.		●
	(5)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쓴다.	●	○
문법	(1)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	
	(2)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	●
	(3)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

	(4)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	●
문학	(1)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	
	(2)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	○	●
	(3)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
	(4)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	
	(5)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	○
	(6)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

<표 II-9> 초등학교 1-2학년 군 국어 자료의 예

국어 자료의 예	
<p>(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 -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간단한 대화 - 자신이나 가족, 친구 등을 소개하는 말 - 사건의 순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 -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고받는 인사말 -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말놀이 자료 <p>(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자음과 모음의 짜임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낱말 - 친숙하고 쉬운 낱말과 문장, 짧은 글 - 흔히 접하는 일이나 사물에 관한 정보를 담은 글 -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짧은 글 -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쓴 글 - 일상생활의 경험을 담은 짧은 글이나 그림책 -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 등이 나타난 그림일기, 일기 <p>(문학 작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발상이나 재미있는 표현이 담긴 동시나 노래 - 환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옛)이야기나 동화 - 의인화된 사물 혹은 동·식물이나 영웅이 나오는 이야기 	

- 학생의 일상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나 동화
- 상상력이 돋보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내용 성취 기준’과 ‘국어 자료의 예’에서는 그림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학 내용 성취 기준의 ‘(5)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어 작품을 수용한다.’은 그림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1-문학-(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와 유사한 내용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그림 동화’는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내용을 전하는 그림책의 일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데 그림이 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림책에 대하여 내용 성취 기준에 명확하게 드러낸 것에 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소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문학(5)를 그림책과 같은 복합 매체에 표현된 작품을 읽어 내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설정한 성취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림책을 별도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체로 보는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문학’ 영역에 ‘매체’ 요소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영역에도 ‘매체’ 요소가 포함된 변화에 따른 차이점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그림책이 지닌 문학적 특성이 시나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갈래와 구분되는 특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여러 갈래의 문학 작품을 담을 수 있는 ‘매체’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국어 자료의 예’에서 그림책과 관련된 예시로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담은 짧은 글이나 그림책’이 제시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림동화’로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그림책’으로 명시된 것을 보면 그림책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언급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경험을 담은’이라는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판타지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그림책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게다가 그림책은 ‘글’에 분류되어 있고 ‘문학작품’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문학작품’에서 ‘동화’, ‘이야기’가 그림책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별도의 자료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1-2학년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에서 그림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림책을 문학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동화와 같은 문학작품을 표현하는 매체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의 특성을 문학적 특성 보다는 복합양식적 특성으로 보는 경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어 교육에서 담화와 글 이외의 매체들을 폭 넓게 수용하면서 그림책의 복합양식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림책이 이야기, 동화와는 별도의 문학작품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나. 국어 교과서의 특징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자료로서, 교육과정의 교육 이념과 목표, 성취 기준, 교서관 및 학습자관, 학교 현장의 요구 등이 총집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다. 한때는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반드시 학습해야 하고, 교사의 판단에 의해 재구성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기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교육 자료로 여기는 관점이 주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적 관점, 학생의 수준, 지역 사회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육 자료로서 교과서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자료이며, 대부분의 교과 교육이 교과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관점이나 정신을 적절히 구현하면서 학교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최적의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2009 개정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국어 교과서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부합하는 교과서
- ② 통합적인 언어 활동을 강조한 교과서
- ③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과서
- ④ 학년군 성취 기준의 계열성을 고려한 교과서

- ⑤ 교과서 사이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한 교과서
- ⑥ 언어 행위의 맥락을 강조한 교과서
- ⑦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강조한 교과서
- ⑧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일련의 학습 과정을 강조한 교과서
- ⑨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⑩ 언어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운영의 융통성을 확보한 교과서
- ⑪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한 교과서
- ⑫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풍부하게 일어나게 하는 교과서
- ⑬ 언어 사용의 태도 부분을 강화한 교과서



3.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

가.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

신혜선(2007)은 그림책의 교육적 기능을 일곱 가지로 밝히고 있다. 그림책은 문제 해결력, 인간 유형과 교류패턴, 사회 질서와 규칙, 상상력 증진, 지적 욕구 충족, 문해 능력 발달, 심미감 증진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수향(2012)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적 관점에서 그림책 활용의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미적 인지 능력의 발달, 두 번째는 시 지각 능력의 발달, 세 번째는 상상력·창의력 발달, 네 번째는 문제 해결력 발달이다.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미술 교과 뿐만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책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능력이 신장될 수 있으며, 국어과와 미술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남지현(2012)은 문학교육과 국어 교육에서의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그림책을 통해 시각적 문해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는 그림책의 문학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글과 그림의 관계에 따른 의미구성 양상, 그림책의 서사와 관련하여 그림책이 문학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윤미(2013)는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 복합양식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책 만들기를 하기 이전에 어린이들은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림책 만들기를 통하여 복합양식 문식성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자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그림책은 한 가지 교과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범교육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각적 문식성, 복합양식 문식성과 같이 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그림책을 국어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나.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

그림책을 교육 자료로 활용한 첫 사례는 코메니우스의 세계 도회(1658)이다. 이

책은 그 시대의 어린이들이 세상을 통합적으로 알고 자국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18세기부터 제작된 알파벳 북은 글자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림책은 아동의 흥미를 끌기 쉽고, 소집단이나 대집단에서 사용이 용이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로 제작될 수 있고, 내용이 각 활동 영역과 관련을 갖기 쉽다는 등의 특성들이 있어 교육 자료로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림책은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교육 자료로 여겨지기 쉽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교육적 목적으로 그림책을 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그림책이 처음부터 교육 자료로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림책이 지닌 특성들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그림책의 여러 특성들은 서로 배타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모든 특성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특성들이 그림책의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는 그림책의 활용 방안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어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국어 활동 교육 자료로서 그림책

국어 활동은 기존에 흔히 문식성으로 여기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어 활동은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어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활동 교육 자료 역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가 처음 그림책을 접하는 시점은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주변의 어른, 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그림책을 읽어 주면서부터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글을 알기 전부터 누군가가 읽어 주는 방법으로 그림책을 읽게 된다. 또는, 읽어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어린이는 그림책의 그림만으로도 그림책을 ‘읽을’ 수도 있다. 글을 읽지 못할 때에는 읽어 주는 그림책을 듣거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그림책은 외워서 말하기도 하며, 등장인물이 말하는 부분은 실감나게 직접 말해보기도 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인 듣기·말하기, 읽기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시간이 지나 어린이가 서서히 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림책의 그림과 글을 연결 지어 가며 스스로 읽어나가기도 한다. 글 읽기가 미숙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

림의 도움을 받아 글의 내용을 추측해내기도 하면서 그림책을 읽어 나간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책은 국어 활동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책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상이며 흥미로운 소재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글과 그림의 비중이 유사한 텍스트를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글과 그림이 통합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그림책은 기본적인 문식성과 관련된 국어 활동 영역의 교육 자료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문학 교육 자료로서 그림책

그림책은 아동문학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할 만큼 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기존의 아동문학과 구별되는 그림책 고유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있으며, 정보 그림책과 같이 문학의 범주로 포함할 수 없는 그림책도 있는 만큼, 모든 그림책을 아동문학의 하위 분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림책의 여러 분야 중 문학으로 분류되는 그림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림책이 지닌 문학적 특성은 다른 갈래의 문학과는 구별되는 특유함을 지니고 있다. 글과 그림이 함께 의미를 전달한다는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김상욱(2006)은 문학적 특성을 가진 그림책을 ‘이야기 그림책’이라고 구분지어, 문학 교육적 가치와 교육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야기 그림책에서 그림은 글 못지 않게 서사를 진행하는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며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주변을 둘러싼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정서적인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였다.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림책이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그림책을 읽고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감동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그림책의 의미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때, 그림책을 문학 교육 자료로서 그림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어느 한 쪽이 세밀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상호 간의 조화를 위하여 절제된 정보만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그림에서,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글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글과 그림, 어느 것에도 드러나지 않았으나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

보았을 때 읽어낼 수 있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절제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학 교육 자료로서 그림책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그림책의 그림에 제시된 그림들은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다는 관점이 있다. 이 때문에 문학 교육 측면에서 그림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Nodelman(1988)은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가지고 내용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어린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고 하였다. 그림책의 그림은 어린이들이 상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은 그림책의 그림을 보면서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책의 그림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다. 황미해(2007)는 문학 반응 활성화를 위하여 그림책의 그림 읽기를 통한 문학 교육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첫째, 그림책 그림 읽기 활동은 그림책을 통해 그림 속의 사실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림을 분석함으로써 문학적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둘째, 그림책 그림 읽기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 주어 문학 반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문학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며 학생 나름의 문학적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셋째, 그림책 그림 읽기는 문학 반응을 확장·심화 시켜 심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이 자칫 단순히 작품을 읽고 활동 위주의 표면적 반응으로 끝나는 것을 보완해줄 수 있다. 글과 달리 그림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반응과 의미 해석을 요구한다. 학생은 그림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반응을 보다 명료화하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간다.

이렇게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친숙한 자료이며 문학 작품으로서의 서사성과 서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한, 그림책의 그림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능동적인 문학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하며 특히, 글과 그림의 조화로 이루어내는 의미 전달 방식은 독자 또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해석과 반응을 요구한다. 그림책은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작품에 반응하고 텍스트와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을 미루어 볼 때, 그림책은 초등 국어 교육에서 문

학 교육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문법 교육 자료로서 그림책

입문기 문자 지도 방법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발음 중심 방법과 의미 중심 방법의 ‘균형적 절충식’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균형적 절충식은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지도 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식이다. 즉, 발음 중심 방법과 의미 중심 방법을 균형적으로 절충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기차기차기차’이라는 그림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낱자 그림책이다(현은자, 2012). 이러한 그림책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림들과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입문기 문자 학습에서 거부감 없이 문자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글의 양이 적기 때문에 맞춤법을 확인하거나 낱말들이 띄어쓰기로 문장을 형성하는 모습을 파악하기 쉽다.



5) 발음 중심 방법은 문자를 음성 언어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문자와 음운의 대응 관계를 중시하여 지도하는 방법이고, 의미 중심 방법은 낱말 또는 문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제시하면서, 그 낱말 또는 문장의 의미 이해 학습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초등학교 1-1 국어 교사용 지도서 p.330)

Ⅲ. 국어 교과서의 그림책 활용 실태 분석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⁶⁾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그림책이 문학 영역을 위한 교육 자료로 제시된 경우이다. 두 번째 형태는 국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된 경우이다. 세 번째는 문법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시된 경우이다. 이렇게 교과서 수록 그림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 분석을 한 이유는, 각 단원이나 차시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그림책의 제시 형태나 교과서 활동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문학으로서의 그림책은 그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다. 이 경우의 학습 목표는 그림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인 글과 그림의 관계를 파악하며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중점을 둔다. 국어 활동 또는 문법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의 그림책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이나 문법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경우이다. 이 때에는 주로 교육하고자 하는 언어 기능과 지식 내용에 알맞게 그림책이 편집되거나 변용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학습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림책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따라 다시 국어 활동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과 문법 학습 자료로서의 그림책으로 나누었다. 이는 교육과정 상의 영역에 따라 분류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과서 수록 그림책 제재를 분석한 결과, 국어 활동 교육을 위한 그림책과 문법 교육을 위한 그림책이 서로 다른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교과서 수록 그림책을 분석하기 전, 교과서에서 그림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제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 <받아쓰기 시험>과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는 그림이 있는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의 양 보다 글의 양이 월등하게 많으며, 내용 전달에 있어서도 그림이 차지하는 역할은 글의 역할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책과 같은 복합 매체를 활용하는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에 따라 수록된 제재이며, 원작 도

6)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영역을 국어 활동(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문법), 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어(문법)'의 경우에는 내용 체계표에서 '문법'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어(문법)' 대신 '문법'으로 영역명을 나타낸다.

서의 삽화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적은 비중의 그림이지만 이를 통해 글의 내용과 분위기를 드러내도록 한 것을 보아 그림책 제재로 포함하였다.



1. 그림책 제재 수록 양상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을 일반 도서 형태의 그림책과 구분지어 지칭하기 위하여 ‘그림책 제재’라는 어휘를 사용하고자 한다. ‘제재’란 학습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소재 또는 재료의 의미’이며 하나의 단원 전체를 구성하는 학습 단원의 하위 요소로, 단원 체제 안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원전으로부터 선정된 뒤, 학습 목표에 맞게 적절한 분량으로 재단되어야 하며, 다양한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제재로 바뀔 수 있다.⁷⁾ 즉, 그림책 제재는 도서 형태로 기존에 존재하던 그림책을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하고, 적합하게 변형의 과정을 거쳐 교과서에 수록한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원작 그림책이 이러한 그림책 제재가 되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원작의 내용이 삭제되기도 하고, 여러 장면이 한 가지로 통합되기도 하며, 또는 일부분만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한다. 원작이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이렇게 변용을 거치는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나타난다. 장점은 원작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상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어휘 등을 변경하여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원작 그림책에서 쉬운 부분만을 발췌해서 수록하는 경우이다. 한편 단점은 부분적인 편집을 하거나, 일부분만 발췌했을 경우에는 원작에서 느낄 수 있는 표현상의 효과나 문학적 감동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 교육과정 분석

II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림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7) 김혜정(2005), 국어교육론1 : 국어 교과 교육론, 한국어교육학회. p.218

[1-2학년군]

- 문학 -

(5) 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그림책이나 동영상 등 복합 매체의 비중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에 표현된 작품을 통합적으로 읽어 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설정한 성취 기준이다. 그림책이나 애니메이션, 아동극 등을 자료로 선정하되 **글이나 말, 그림, 동영상 등 여러 매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보다는 여러 매체들이 제각각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 국어 자료의 예(1-2학년군) -

(글)

- 일상생활의 경험을 담은 짧은 글이나 그림책

위의 문학(5)와 같이 그림책을 직접 언급하는 성취기준은 1-2학년군에만 나타나 있고, 다른 학년군의 성취기준에서는 그림책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글과 그림을 활용하는 매체 관련 성취기준이나 동화와 관련된 성취기준 역시 그림책을 포괄하는 성취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림책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림책과 직접 연관된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는 1-2학년군에 한정하여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위의 성취기준은 그림책을 직접적인 학습 대상으로 삼는 단원과 연관될 수 있는 경우이다. 특히, 그림책을 선정하되 글과 그림의 역할이 동등한 것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그림책에서 그림이 가지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과 관련된 단원의 그림책 제재는 반드시 글과 그림의 역할이 동등하며 그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 자료의 예’에서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담은 짧은 글이나 그림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 자료의 예’에서 그림책을 제시한 학년군은 이 1-2학년군이 유일하다. 이는 그림책이 저학년에 적합한 자료라고 보는 관점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그림책 수록 단원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1> 그림책 수록 단원과 관련 성취기준

학기	단원	성취 기준
1-1	2.재미있는 날자	[문법](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쓰기](1)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1-1	4.기분을 말해요	[듣기·말하기](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듣기·말하기](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1-1	5.느낌이 솔솔	[문학](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학](5) 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듣기·말하기](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1-1	7.알맞게 띄어 읽어요	[읽기](3)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문법](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2	1.느낌을 나누어요	[문학](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학](5) 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1-2	3.알맞은 인사말	[듣기·말하기](3) 듣는 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듣기·말하기](5) 상황과 상대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고,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인사를 나눈다.
1-2	7.다정하게 지내요	[듣기·말하기](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듣기·말하기](8) 고운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4)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2-1	1.아, 재미있구나!	[문학](2)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

		[읽기](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문학](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2-1	10.이야기 세상 속으로	[문학](3)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듣기·말하기](4)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2-2	4.어떻게 정리할까요?	[읽기](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문법](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문법](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는 영역 간 통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원마다 2-3개 영역의 성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단원에서 각각의 성취기준의 비중이 유사한 경우도 있고, 일부 성취 기준의 비중이 큰 경우도 있다. 이는 각 단원 목표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그림책이 수록된 단원들은 주로 어떤 영역 및 성취 기준과 연관이 있는지 정리한 것이다.

<표 III-2> 그림책 수록 단원의 성취 기준 정리

영역	성취 기준	관련 단원
듣기·말하기 (9) ⁸⁾	(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1-1. 4. 기분을 말해요 1-2. 7. 다정하게 지내요
	(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1-1. 4. 기분을 말해요 1-1. 5. 느낌이 솔솔 1-2. 3. 알맞은 인사말
	(4)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2-1. 10. 이야기 세상 속으로
	(5) 상황과 상대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고,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인사를 나눈다.	1-2. 3. 알맞은 인사말
	(7) 상대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	2-2. 5. 이야기를 꾸며요
	(8)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1-2. 7. 다정하게 지내요

읽기 (4)	(2)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1-2. 3. 알맞은 인사말
	(3)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1-1. 7. 알맞게 띄어 읽어요
	(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2-1. 1. 아, 재미있구나!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2-2. 4. 어떻게 정리할까요?
쓰기 (1)	(1)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1-1. 2. 재미있는 낱자
문법 (4)	(1) 한글 낱자(자모)이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1-1. 2. 재미있는 낱자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2-1. 1. 아, 재미있구나 2-2. 4. 어떻게 정리할까요?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2-2. 4. 어떻게 정리할까요?
문학 (9)	(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1-1. 5. 느낌이 술술 1-2. 1. 느낌을 나누어요 2-1. 1. 아, 재미있구나!
	(2)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	2-1. 1. 아, 재미있구나!
	(3)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2-1. 10. 이야기 세상 속으로 2-2. 5. 이야기를 꾸며요
	(4)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1-2. 7. 다정하게 지내요
	(5) 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1-1. 5. 느낌이 술술 1-2. 1. 느낌을 나누어요

위의 표는 각 영역별로 어느 성취 기준이 어떤 그림책 수록 단원에 반영되었는지, 몇 회 반영되었는지 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이 관련되는 영역은 문학 영역이다. 그림책의 문학적 특성이 교과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학년 1학기 <5. 느낌이 술술> 단원은 시와 그림책의 표현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학습 목표에 언급하여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유일한 단원이다. 국어 활동 영역 중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이 가장 많은 횟수로 반영되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시각 자료

8) 각 영역별로 그림책 수록 단원에 반영된 횟수를 집계하여 괄호 속에 표시하였다.

듣기·말하기 영역 9회, 읽기 영역 5회, 쓰기 영역 2회, 문법 영역 4회, 문학 영역 10회

이기 때문에 문자 언어를 다루는 읽기나 쓰기 영역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듣기·말하기 영역과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의 성취 기준 반영 횟수를 보고 관련 정도를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교과서를 살펴보았을 때, 그림책 제재를 활용한 학습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성취 기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림책 제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고려하여 집계를 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문학 (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취 기준이 반영된 1학년 1학기 <5. 느낌이 솔솔> 단원에서는 그림책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활동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단원에서 동시를 낭송하는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단원에서는 그림책과는 관련성이 낮은 성취 기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 표에 나타난 성취 기준의 대부분은 그림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 점은 이후의 그림책 수록 단원 분석 및 그림책 활용 실태 분석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성취 기준을 정리해 보아줄 때, 그림책이 문학이나 읽기 영역뿐만 아니라 듣기·말하기 영역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림책 수록 단원 분석

현재 2009개정교육과정 1~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책은 총 13권이다. 그림책은 국어 교과서의 여러 영역의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 단원 내에서도 여러 영역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는 통합 교과서로 편찬이 되었으며 언어 기능의 통합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림책이 수록된 단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성취기준 문학(5)와 관련되어 그림책 자체를 학습하는 단원이다. 여기에서는 그림책이 학습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림책의 특성을 익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며 그림책을 감상하는 것을 주요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단원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다른 학습을 하는 단원이다. 즉 그림책이 학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읽기’ 영역을 지도하기 위하여 그림책 텍스트를 활용하거나, ‘문법’ 영역에서 자음을 익히기 위해 ㄱ, ㄴ, ㄷ 순서대로 낱말과 그림이 제

시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같이 그림책이 학습의 목적인 단원은 문학 관련 단원 중 성취 기준 문학(5)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성취 기준 문학(5)는 항상 그림책을 학습 목적으로 하는 단원에만 반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림책을 학습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단원들도 문학(5)와 관련되어 있다. 이 경우는 다른 성취 기준이 더 중심이 되는 단원이거나, 그림책이 그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지 않은 단원이다. 이렇게 그림책을 학습 수단으로 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어 활동(듣기·말하기, 읽기, 쓰기)과 관련된 단원이고, 다른 하나는 문법 영역과 관련된 단원이다.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기준하여 분류한 것이다. 즉, 그림책이 국어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이용된 경우와 문법을 위한 교육 자료로 이용된 경우로 분류한 것이다.

다음의 표는 교과서 그림책 제재가 수록된 단원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그림책들 중에는 엄밀한 의미의 그림책이 아니라 글의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학(5)와 같이 그림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취기준에 의한 단원인 경우에는 그림책 수록 단원으로 포함하였다.

<표 III-3> 교과서 그림책 수록 현황

연번	학기	그림책 제재의 제목	단원	차시	영역
1	1-1	기차기차	2.재미있는 날자	7~9차시	문법
2	1-1	재미있는 내 얼굴	4.기분을 말해요	6~7차시	국어활동
3	1-1	괜찮아	5.느낌이 솔솔	4~6차시	문학
4	1-1	앗! 따끔!	5.느낌이 솔솔	7~8차시	문학
5	1-1	바람이 좋아요	7.알맞게 띄어 읽어요	6~7차시	문법
6	1-2	책이 꿈지락꿈지락	1.느낌을 나누어요	7~9차시	문학
7	1-2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	3.알맞은 인사말	5~7차시	국어활동

8	1-2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7.다정하게 지내요	1~2차시	국어활동
9	2-1	으악, 도깨비다!	1.아, 재미있구나!	7~10차시	문학
10	2-1	오소리네 집 꽃밭	1.이야기 세상 속으로	2-3차시	문학
11	2-2	설빔 ("설빔, 여자아이 고운 옷")	4.어떻게 정리할까요?	3-4차시	문법
12	2-2	설빔 ("설빔, 남자아이 멋진 옷")	4.어떻게 정리할까요?	3-4차시	문법
13	2-2	받아쓰기 시험 (원제: 우리 반 스파이)	5.이야기를 꾸며요	3-4차시	문학

1,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들은 위와 같다. 그림책이 수록된 단원들의 관련 영역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각 단원은 한 가지 영역에만 관련되기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이 통합된 경우도 많다. 위 표의 영역 부분에도 중점 성취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영역만 표시하였지만, 두 가지 영역의 비중이 유사한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하였다.

위의 표에서 11번과 12번의 2권의 그림책은 교과서에서 '설빔'이라는 하나의 제재글로 통합되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1,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은 총 13권이지만 그림책 제재의 수는 12개이다.

다. 그림책 제재의 수록 유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제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작 그림책과의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에 도서로 출간된 원작 그림책은 '그림책'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그림책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림책 제재'라고 하였다. 기존에 각기 개별적인 도서로 출간된 그림책들이 교과서라는 한정된 틀 속에 들어오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버리거나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그림책은 분명히 그 원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림책 제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작 그림책과 교과서 속 그림책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림책 제재의 수록 유형은 그림책이 교과서 속 그림책 제재로 수록되면서 변용되는 유형들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원작 그림책과 교과서 제재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그림책들이 변용된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그림책의 전체 글과 그림을 교과서에 수록하였다. 실제로 그림책 제재 중 원작 그림책을 단 한 장면도 제외하지 않고 전체를 교과서에 수록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야기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한 두 장면 정도는 삭제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 상, 처음부터 완결까지 모두 수록이 되었다면, 한 두 장면이 제외되더라도 이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전체에서 일부의 글과 그림을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 경우에는 앞부분이 편집된 경우, 뒷부분이 편집된 경우, 중간 장면들이 다수 편집된 경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중간 장면이 편집됨으로 인하여 전체 이야기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세 번째, 두 장면 이상을 한 장면으로 합쳐서 수록하였다. 원작에서는 각기 개별적인 페이지에 제시된 그림을 한 장면에 합쳐서 수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는 그림의 판형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학습자가 글과 그림을 읽어 나가는 속도, 시선의 흐름 역시 달라진다.

네 번째, 글과 그림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이다. 의도적으로 글과 그림의 아이러니한 관계를 나타낸 그림책이 아니라 원작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글과 그림의 위치가 틀어져서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림책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원작 그림책 역시 글과 그림의 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도 네 번째로 분류하여 글과 그림의 배치의 중요성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림책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과 그림의 배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된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그림책 제재 활용 양상

가. 국어 활동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

국어 활동이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언어의 주요 4기능이므로 이 영역을 지도하기 위해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 활동 학습 자료로서의 그림책은 그림책 자체를 학습하기 보다는 주요 언어 기능들을 학습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그림책의 전체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 발췌하는 등,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게 변용되어 수록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교과서 수록 방법은 그림책의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영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언어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므로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그림책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발췌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1학년 1학기 <재미있는 내 얼굴>

단원명	4. 기분을 말해요	차시	6~7차시
단원 성취기준	[듣기·말하기](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듣기·말하기](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단원 목표	자기의 기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차시 목표	기분을 나타내는 말에 대하여 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재미있는 내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의 각 그림의 바로 다음 페이지에 주인공 아이의 정면 얼굴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면에서는 아이의 얼굴이 주로 측면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과 배경과 함께 그려지기 때문에 표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다음의 한 페

이지에는 이전 장면에서 나타난 아이의 정면 표정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준다. 표정이 그려진 페이지에는 다른 등장인물도, 배경도 없이 정 가운데 사각형 속에 아이의 얼굴과 상반신만 그려져 있다. 오로지 아이의 표정을 보여주기 위한 페이지이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긴 후에 앞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시 진행된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이 그림으로 제시되고, 오른쪽에는 상황에 따른 주인공 아이의 표정이 크게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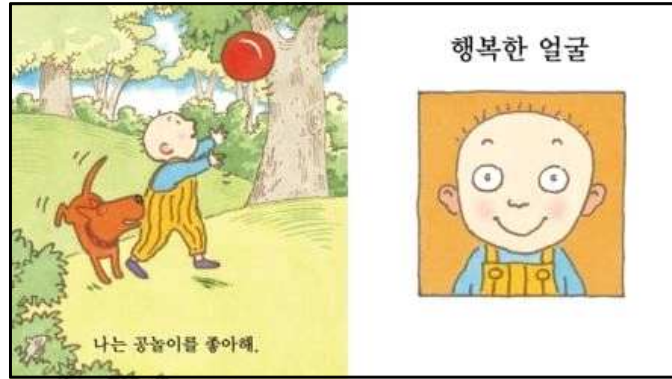
(2) 글과 그림의 관계

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묘사하는 상황이 서로 대응하면서도 그림이 글에 비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글은 그림책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그림 상황 속에서 아이가 하는 말을 글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아이의 말투 그대로 구어체로 되어 있다. 처음 꿈이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꿈이 나타났어요.’라는 설명 대신, ‘으악! 큰 꿈이다!’ 라는 아이의 말이 그대로 적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수준은 한 문장에 3~4단어 정도의 길이와 1학년 혹은 그 이하 정도의 어휘 수준이다. 그래서 그림에 벌어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만약 첫 장면에서 ‘나는 공놀이를 좋아해’라는 글만 읽고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나’가 있는 곳이 집 마당인지 숲 속인지 확인할 수 없고, 공놀이를 하는 중이라는 이렇게 글과 그림이 서로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대응 관계이면서도 글의 비중이 적은 그림책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입문기 독자들에게 적합하다.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보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파라 텍스트

그림책 <재미있는 내 얼굴>의 화면 배치는 상황을 묘사하는 페이지와 그에 따른 표정이 그려진 페이지가 각각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주인공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왼쪽 페이지에서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인 오른쪽 페이지에는 상황에 의한 주인공의 표정이 큼지막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페이지의 배치는 각 상황과 이에 따른 주인공의 기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Ⅲ-1] 그림책 <재미있는 내 얼굴>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단원은 ‘듣기·말하기’ 단원으로, 단원 목표는 ‘자기의 기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다. 본 차시 목표는 ‘기분을 나타내는 말에 대하여 안다.’ 이므로 기분을 나타내는 낱말을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단원 목표 및 차시 목표에 알맞게 그림책 제재는 <재미있는 내 얼굴>이 수록되었다.

<재미있는 내 얼굴>은 아이가 숲 속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곰을 만나 함께 즐겁게 공놀이를 하는 내용이다. 내용이 단순하고 글이 구어체이며 길이가 짧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학생 수준에 적합한 그림책이다.

이 그림책 제재는 아이가 겪는 상황마다 별도로 표정이 나타난 페이지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표정 페이지에는 아이의 얼굴 그림뿐만 아니라 ‘행복한 얼굴’, ‘화난 얼굴’ 과 같이 기분을 설명하는 글도 함께 적혀 있다. 그래서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아이가 느끼는 기분을 적절한 어휘와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익히는데 적절한 제재이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이야기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야기의 상황과 아이의 기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며 기분에 대한 표현을 학습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중간에 아이의 공을 가져가버린 곰에게 화가 나서 곰을 약 올리는 장면이 교과서에서는 삭제되었다. 약 올리는 표정은 기분과 연결 짓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

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재미있는 내 얼굴> 활동

- 1.그림을 보고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기
- 2.글과 그림을 보고 아이의 기분에 어울리는 표정 그림 붙임 딱지를 찾아 붙이기
- 3.아이의 기분을 생각하며 '재미있는 내 얼굴' 읽기
- 4.얼굴 표정에 어울리는 말을 선으로 이어 보기

(1) 성취기준 수준

차시 목표 '기분을 나타내는 말에 대하여 안다.'에 적합하게 기분을 나타내는 낱말을 확인하고 다시 적어보거나 말해보는 활동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에 나와 있는 얼굴 표정 그림과 여기에 알맞은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선으로 연결해 보게 함으로써 제재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차시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제재 수준

<재미있는 내 얼굴>은 교과서 활동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읽기 전 활동으로 주인공 아이의 여러 가지 표정 그림을 제시하고 각 표정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상황이나 설명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어린 아이의 정면 표정 4개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 아이의 기분이 어떠한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 활동에서는 학습자의 어휘력이나 기분에 대한 배경지식에 따라 응답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글을 읽기 전에 학습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학습자의 잘못된 응답을 즉시 수정하기보다는 잠시 유보할 수 있다. 읽기 전 활동에서 학습자가 정확한 응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읽으면서 학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 활동을 '그림을 보고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여 봅시다.' 라고 서술한 것은 적절하다.

두 번째 활동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는 그림책 제재의 첫 번째 장면을 활용하였다. 이 장면의 오른쪽 아래에는 비어 있는 사각형이

있으며, 이 칸에는 제시된 상황에서 아이의 기분에 어울리는 표정 붙임 딱지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장면을 읽고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첫 장면을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활동을 해결해야 하므로 이야기의 시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게다가 그림책의 제목과 작가명은 두 번째 장면에서 적혀 있어, 첫 번째 장면은 그림책 본문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에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제시되었다. 게다가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페이지를 넘기게 되어, 이전 페이지에서 활동한 첫 장면은 이후 연결되는 이야기와 구분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꿈의 등장으로 시작되어 버렸다. 여기에서는 아이가 숲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나무 뒤에서 등장한 곰이 손가락으로 아이의 공을 가리키고 있는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맥락이 필요하다. Nodelman(1988)은 그림책 속 각각의 그림은 이어지는 그림을 위한 맥락을 만들어 내며, 어떻게 다음 그림을 지각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스키마가 된다고 하였다. 즉, 그림 한 장면은 장면 속에 드러난 의미 전달의 역할 외에도, 앞뒤 이야기가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이야기의 타당성과 인과 관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첫 장면은 전체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교과서와 같이 뒷 장면과 분절시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차시의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그림책 제재를 읽은 후, 상황에 따라 주인공이 느끼는 기분과 이러한 기분이 드러나는 표정, 그리고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그림책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상황과 관련된 주인공의 기분을 찾는 활동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그림책 제재의 첫 장면은 활동이 아니라 다른 장면들처럼 원본 그림책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상황과 어울리는 주인공 아이의 표정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그림책 제재를 모두 읽은 후, 알게 된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그림책 제재에서 보았던 주인공 아이의 표정들과 이를 표현하는 말을 선으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그림책 제재의 그림과 글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였고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정확하게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읽기 후 활동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3) 학습자 수준

학습자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글을 많이 쓰는 활동보다는 그림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학습 부담이 크지 않다. 읽기 전 활동은 다양한 얼굴 표정을 보며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제시된 그림은 어린이의 선호에 알맞게 단순화된 인물이 다소 과장스럽게 그려져 있으며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예상하게 하는 것은 1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읽기 후 활동의 경우, 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수 있는 활동이다. 기분을 나타내는 말과 그림을 알맞게 연결하는 것이므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쉬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이다.

2) 1학년 2학기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

단원명	3. 알맞은 인사말	차시	5/9, 6~7/9
단원 성취기준	[듣기·말하기](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있게 말한다. [듣기·말하기](5) 상황과 상대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고,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인사를 나눈다. [읽기](2)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단원 목표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차시 목표	5차시 글을 읽고 때와 장소에 알맞은 인사말을 안다. 6-7차시 알맞은 인사말을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그림의 배경이나 등장 인물이 주로 노란색 계열의 색깔로 채색되어 있다. 이러한 색의 분위기 때문에 그림책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등장 인물은 전부 동물이지만 마치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맹수라고 여길 수 있는 곰, 여우도 부드러운 형태로 표현하여 온순한 성격으로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동물들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익숙한 소재이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므로 사람으로 그려진 것 보다 더욱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동물의 크기도 실제 동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서로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코끼

리는 토끼에 비해 훨씬 큰 몸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고,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고 있다. 즉, 본 그림책에서는 등장 인물을 사람의 모습 대신에 동물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 그 이외의 동물의 특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등장 인물들이 동물이라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림책의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림책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에서 글과 그림은 대응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림보다 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그림은 글의 내용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삽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림이 없더라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즉, 그림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림이 있는 동화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그림책 제재의 내용은 주인공 포포가 친구 키키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듣기·말하기](5) 상황과 상대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고,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인사를 나눈다.’ 라는 성취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그림책 제재이다. 또한 차시 학습목표는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이므로 여기에도 적합한 제재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은 읽기 태도와 관련하여 본 그림책 제재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제재라고 볼 수 있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원작 그림책의 전체 이야기를 수록하되 중간에 몇 부분을 삭제한 형태이다. 그리고 2 부분으로 나누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차시 단위로 구분지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5차시에서는 도입부를, 연차시로 구성된 6-7차시에서는 중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을 위한 분량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5차시에서는 그림책 제재의 도입부를 제시하여 ‘이해학습’으로 구

성하고, 6-7차시는 중반 이후의 부분을 제시하여 ‘적용학습’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그림책 제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원작 그림책과 달리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학습량을 조절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그림책 제재에는 원작 그림책과 달리 도입부에 여우 박사님이 포포를 만드는 과정, 중반부에서 포포와 키키의 갈등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그림에 2~3페이지의 분량의 글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림의 수를 줄여 전체 페이지를 축소하고, 그림이 줄어든 만큼 글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의 글을 한 페이지로 합친 것이다. 이는 글과 그림의 관계에서 글의 비중이 더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용이 일어난 이유는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인사말을 익히는 내용을 위주로 간추려 제시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체 분량을 줄여서 수록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기승전결이 다소 약하게 드러난다. 원작 그림책에서는 포포와 키키가 갈등을 빚은 후 서로 화해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그림책 제재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원작 그림책에 비해 이야기의 구성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 그림책 제재는 원작 그림책에 비해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 변용되어 있다. 하지만 본 그림책 제재는 문학 영역보다는 국어 활동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림책을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 활동

- 5차시
- 1. 어떤 인사말이 있는지 생각하며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를 읽어 보기
- 2.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 3. 때와 장소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아보기

-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 활동

- 6-7차시
- 1. 때와 장소에 알맞은 인사말을 생각하며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를 이어서 읽어보기
- 2.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 3.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를 다시 읽고 알맞은 인사말을 찾아 자신 있게 말하기

(1) 성취기준 수준

• 5차시

5차시에서는 인사말에 중점을 두고 그림책 제재를 읽고 난 후, 활동 2에서 내용 확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활동 3에서 때와 장소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와 직결되는 활동은 활동 1과 활동 3이다. 그리고 활동 3에서는 포포가 인사말을 잘못 말한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6-7차시

활동 1은 알맞은 인사말을 생각하며 그림책 제재를 읽는 것이므로 적절한 활동이다. 그리고 활동 3 역시 알맞은 인사말을 말해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활동 2에 제시된 질문들이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포포는 학교에 도착하여 선생님에게 어떤 인사말을 하였나요?
- (2) 포포는 간식 시간에 어떤 인사말을 하였나요?
- (3) 키키는 사과할 때 어떻게 인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나요?

질문 (1)과 (2)는 포포가 사용한 잘못된 인사말을 묻는 것인지, 키키의 도움을 받아서 말한 알맞은 인사말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잘못된 인사말을 묻는 것이라면, 본 차시에서는 알맞은 인사말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의 의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절한 인사말을 묻는 것이라면 질문 (3)과 같이, 키키가 알려준 인사말을 묻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더 질문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2) 제재 수준

• 5차시

활동 3은 그림책 제재에서 포포가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가려고 하는 장면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포포가 잘못 인사한 것을 보기로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알맞은 인사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는 그림책 제재의 글과 그림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그림책 제재의 그림을 보고 학생들은 그림책 내용 중 포포가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때 포포가 잘못 사용한 인사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림책 제재의 글도 함께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제재의 특성에 알맞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6-7차시

활동 3은 포포가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포포가 사용하는 인사말은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하며, 다른 등장 인물들의 말을 읽고 이와 관련하여 포포가 사용할 수 있는 알맞은 인사말을 생각해야 한다. 즉, 그림책 제재의 글과 그림을 모두 활용하여 활동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재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3) 학습자 수준

전체적으로 활동의 구성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5차시의 활동 3과 6차시의 활동 3과 같이 그림책 제재의 그림을 적절히 활용한 활동들은 글만으로 제시된 활동보다 학생들이 더 쉽게 활동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단순히 난이도의 관점에서만 적합한 것은 아니다. 활동에 제시된 그림은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는 그림을 통해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그림책 제재를 적절히 활용한 활동은 학습 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1학년 2학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단원명	7. 다정하게 지내요	차시	1~2차시
단원 성취기준	[듣기·말하기](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듣기·말하기](8)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4)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단원 목표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차시 목표	1~2차시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그림 III-2]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은 대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기 보다는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얼굴 모습은 동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표정과 몸, 행동은 사람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인물들은 형태만 그려져 있고, 거의 채색이 되어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채색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밀하게 채색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 대신 배경이 여러 가지 색이 번지듯이 채색되어 있거나 콜라주처럼 여러 가지 색의 종이가 붙여져 있

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위에 그려진 대상들은 배경의 색이 투과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림 III-2]의 말풍선 속 ‘미안해’와 같이 등장 인물이 하는 말은 그림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적혀 있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림 III-3]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글과 그림은 상호 보완 관계에 가깝다.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림은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III-3]을 보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재현, 2012)

“고마워.”라고 말하면 아깝지 않아요.
 귀찮다는 생각이 싹 달아나요.
 언제 내가 힘들었나요?
 뭐, 더 도와줄 일은 없나요?

글은 ‘고마워’라는 말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무거운 것을 ‘같이 들어 줄까?’라고 묻는 친구에게 ‘고마워’라는 대답을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그림에서는 등장 인물들의 마음 속의 말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글에서는 ‘귀찮다는 생각이 싹 달아나요.’, ‘뭐, 더 도와줄 일은 없나요?’ 와 같이 그림에서 볼 수 없는 등장 인물들의 마음이나 다른 대화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글과 그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그림책 제재는 단원 성취 기준 중 ‘[듣기·말하기](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와 ‘[듣기·말하기](8)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관련이 되어 있다. [듣기·말하기](2)는 제재의 내용에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등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본 그림책 제재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듣기·말하기](8)의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학습목표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은 본 그림책 제재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즉, 본 그림책 제재는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그림 III-4] 1-2 국어 교과서 193쪽



원작 그림책의 판형은 세로보다 가로로 조금 더 긴 형태이다. 때문에 그림책 제

재는 원작 그림책의 판형에 맞추기 위해 교과서의 위와 아래에 여백을 많이 남겼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활동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을 읽기2.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을 읽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찾아 붙이기3.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쓰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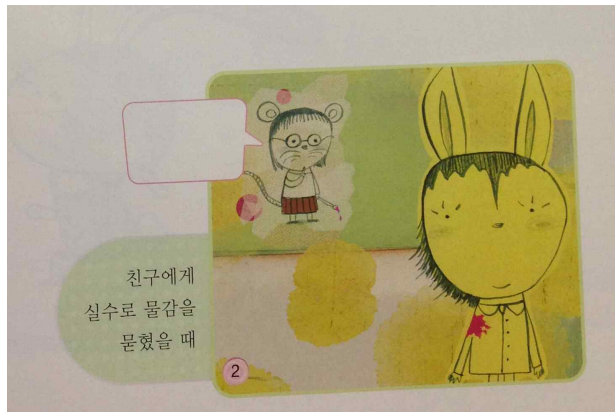
(1) 성취기준 수준

모든 활동의 초점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알아보는 것에 맞춰져 있다. 활동 1에서는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생각하며 그림책 제재를 읽도록 하고, 활동 2에서는 그림책 제재의 주요 장면을 보고 알맞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말’ 붙임 딱지를 붙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활동 3에서는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스스로 떠올려 보도록 하였다. 모든 활동이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2) 제재 수준



[그림 Ⅲ-5] 1-2 국어 교과서 198쪽 활동 2



활동 2는 그림책 제재의 주요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글로 쓴 설명을 덧붙여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림 Ⅲ-5]와 같이 학습자가 그림의 상황을 파악하여 여기에 적합한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부록의 붙임 딱지에서

골라 붙이도록 하였다. 그림책 제재의 그림을 보고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을 파악하게 하였으며, 그 의미를 글과 연결 지어 적합한 말을 찾도록 하는 활동이므로 그림책 제재의 특징을 적합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학습자 수준

활동 2는 붙임 딱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학습자가 직접 글로 쓰도록 할 수도 있지만 주로 학습자들은 직접 쓰는 것보다 붙임 딱지를 붙이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부록에 있는 붙임딱지는 그 자체로 정답에 대한 ‘보기’가 되므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붙이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떠올려서 답을 쓰는 것보다 난이도가 낮으며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다.

나. 문학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

1) 1학년 1학기 <괜찮아>

제목	괜찮아	교과서	151~155쪽
단원명	5. 느낌이 솔솔	4차시 5-6차시	4차시 5-6차시
단원 성취기준	[문학](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학](5) 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 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듣기·말하기](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단원 목표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차시 목표	4차시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안다. 5-6차시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하며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그림책 <괜찮아>의 그림은 배경이 단색으로 처리되고 등장인물인 여자 어린이와 여러 동물들을 중심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여자 어린이는 몸에 비해 얼굴이 훨씬 크게 그려져 있어 표정이 다소 과장되어 보이면서도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동물들 역시 표정이 익살스러운 표정이 눈에 띈다. 동물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표정은 만화처럼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고슴도치 가시에 찢린 사자가 울상을 짓는 얼굴이나 얼룩말보다 빨리 달리는 타조의 의기양양한 표정, 타조에게 달리기 뒤쳐지는 얼룩말의 당황한 표정은 실제 모습보다는 만화처럼 재미를 준다.

그림의 배치는 매우 규칙적이다. 주제가 되는 동물의 단점이 글과 그림으로 각각 왼쪽과 오른쪽 면에 배치된다. 하지만 한 장을 넘기면 한 개의 장면이 양쪽 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동물의 크기를 양면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크게 그리기도 했다. 같은 인물임에도 훨씬 크게 그려진 것은 장점이 단점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준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글과 그림은 대응하는 내용을 표현하면서도 그림에서는 글에 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개미가 작지만 힘이 세다는 글의 내용에 함께 그려진 그림은 개미가 자신의 몸보다 10배 이상 커 보이는 나뭇잎을 들고 가고 있다. 글의 내용에는 어디에도 개미가 어느 정도 힘이 센지 아무런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림에서 개미가 나뭇잎을 들고 가는 장면은 글에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예를 들면, 고슴도치가 가시 덕분에 무섭지 않다는 글에는 사자가 고슴도치의 가시에 찢려 울고 있다. 글의 내용에는 사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고슴도치가 어떤 이유로 무섭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고슴도치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있으며 사자는 그 가시에 찢려 울고 있다. 그림은 고슴도치가 어떻게 자신의 가시로 몸을 지키는 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렇게 그림은 글을 보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3) 파라 텍스트

표지에는 <괜찮아>라는 제목이 윗부분에 큼지막하고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고, 여자 아이가 팔짱을 낀 채, 미소 지으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 있다. 배경은 다른 그림이 전혀 없이 빨간색으로만 진하게 채색되어 있어서 겉표지부터 강한 인상을 주며 여자 아이의 모습은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준다.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그림책 제재는 [문학](5)의 성취 기준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다. 본 그림책 제재는 글보다 그림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글을 그림과 관련 지으며 읽어야 제재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 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적합한 제재이다.

하지만 단원 목표는 ‘이야기’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림책’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쉽지 않다. 또한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림책 제재의 내용을 폭 넓게 이야기에 포함할 수 있으나 본 단원의 성취 기준과 여기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를 연관 지어 보았을 때, 단원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보다 의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차시 목표는 4차시 및 5-6차시의 목표가 모두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에 주목하고 있다. 단원 목표와 달리 ‘그림책’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어, 그림책 갈래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괜찮아>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림의 비율과 배치이다. 그림책에서는 각기 다른 한 면에 나누어 두 면에 걸쳐 배치되었던 장면들을 그림책 제재에서는 한 면에 합쳐서 수록하였다. 또는 한 장면을 양 면에 걸쳐 크게 제시하였던 장면을 한 면에 합치기도 하였다. 그림책에 비해 그림책 제재의 분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교과서 분량을 고려한 편집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두 개의 장면을 한 면에 합치는 과정에서 그림의 크기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많이 달라졌다. 그림의 가운데 부분만 남기고 세로로 길게 잘라버려 매우 좁아 보이게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 면에 걸쳐 넓게 보여줬던 장면도 한 쪽 면의 비율에 맞게 축소하고 잘라내었다. 이러한 편집은 원작 그림책에서 느낄 수 있던 ‘장점의 압도감’은 훨씬 축소되었다. 그림책 제재에서는 단점을 압도하는 강한 장점의 힘이 약해졌다.

그림의 배치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4차시에서 그림책 제재가 처음 시작되는 그림은 교과서의 오른쪽 면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왼쪽에는 장점이, 오른쪽에는 또 다른 동물의 장점이 제시된다. 원작 그림책에서 양 면에 배

치되었던 그림들을 한 면에 합쳤다는 차이는 있지만, 페이지를 넘겨야만 동물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제재가 계속 연결되는 5-6차시에서는 배치가 바뀐다. 4차시의 학습 활동이 한 페이지를 차지 하게 되면서, 5-6차시의 그림책 제재는 한 페이지씩 밀려나면서 배치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단점은 왼쪽, 장점은 바로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 단점과 장점을 거의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배치이다. 이는 학습자의 기대감, 페이지를 넘기는 설렘을 반감시킨다. 게다가 차시가 바뀌기는 하지만 같은 그림책 제재의 장면의 배치 방법이 바뀐다는 것은 학습자가 제재를 읽는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괜찮아> 교과서 활동

- 4차시
- 1.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하며 '괜찮아'를 읽기
- 2. 괜찮아를 읽고 글과 그림의 내용 알아보기
- 3.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하며 '괜찮아'를 다시 읽어 보기

- <괜찮아> 교과서 활동

- 5-6차시
- 1. 그림을 보고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며 '괜찮아'를 이어서 읽기
- 2. '괜찮아'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 3. 157쪽 그림의 안에 알맞은 말을 쓰기
- 4.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기

(1) 성취기준 수준

• 4차시

활동 1은 단원 성취기준의 [문학](5)와 차시 목표를 반영하여,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하며 제재를 읽도록 하고 있다. 활동 2는 제재를 읽은 후, 글과 그림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애벌레의 생각과 사자의 표정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어, 그림의 의

미에 유의하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 3은 그림책 제재를 다시 읽고 글과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성취 기준과 차시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활동들과 관련 질문들 모두 글과 그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6차시

5-6차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에는 글의 일부분이 빈 칸으로 비워져 있다. 활동 1에서는 그림을 보고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활동 2에서는 그림책 제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들은 글과 그림을 모두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므로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 활동 3에서는 활동 1에서 그림책을 읽으며 생각해보도록 했던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써 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 역시 그림의 의미를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활동 4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림책의 등장 인물들이 자신이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냈듯이 학습자 역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여,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의미에 대하여 학습하는데 적합하다.

(2) 제재 수준



- 4차시

활동 2에 제시된 질문들은 글과 그림의 내용을 각기 따로 확인하고 있다.

(1) 그림에서 애벌레는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나요? (그림)

(2) 아이는 고슴도치를 보고 무엇이 많다고 하였나요? (글)

(3) 그림에서 사자는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그림)

본 그림책 제재는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그림에 제시되기 때문에 그림에만 나타난 의미를 따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림의 내용을 글과 별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질문은 이후의 활동 3에서 제시되고 있다. 활동 2는 활동 3과 같이 글과 그림을 모두 통합하여 이해하기 이전의 단계적 활동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활동 3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개미가 팬찮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글) (그림)

- (2) 고슴도치가 무섭지 않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글) (그림)

이와 같이 글의 의미와 그림의 의미를 따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글과 그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활동 3의 질문들은 본 그림책 제재에서 볼 수 있는 글과 그림의 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차시

활동 2의 질문은 글과 그림을 모두 반영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 (1) 타조는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그림) (글)
- (2) 기린이 “괜찮아!”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글) (그림)
- (3) 동물들이 “그럼 너는?” 하고 물었을 때 아이의 표정은 어떠하였나요?
(글) (그림)

이와 같이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한 질문들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활동 3은 타조가 얼룩말을 앞질러 달려가는 그림을 보고, 타조가 하는 말을 추측하여 보는 것이다. 타조가 하는 말은 빈칸으로 비워져 있지만, 앞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본 그림책 제재의 형식을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그림을 통해 빈칸에 들어가는 글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4는 본 그림책 제재의 형식을 빌려 학생 자신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5차시는 이렇게 그림책 제재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3) 학습자 수준

- 4차시

4차시에서는 1학년 학습자의 능력에 부합하도록, 읽은 후 활동을 2단계로 나뉜 점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다. 활동 2에서 글과 그림의 내용을 각각 생각해보도록 질문을 하고, 활동 3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질문을 하였기 때문이다. 글 읽기에 아직 서툴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림책에서 그림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읽기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글과 그림을 적절히 관계 지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림책을 바르게 감상했다

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4차시는 글과 그림을 관계 속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활동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적절하다. 이렇게 4차시의 활동을 통해 5-6차시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감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5-6차시

5-6차시는 이전의 4차시에서 글과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구분한 활동을 거쳐 본격적으로 글과 그림이 함께 드러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시와 달리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과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학습자가 이전 차시에서 충분히 학습이 되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활동 3과 같이 그림을 보고 글의 내용을 추측하는 활동은 그림책의 문체에 알맞게 쓰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응답에 ‘타조가 빨리 달린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더라도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1학년 1학기 <앗! 따끔>

제목	앗! 따끔!	교과서	163-187쪽
단원명	5. 느낌이 솔솔	차시	7-8차시
단원 성취기준	[문학](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학](5) 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듣기·말하기](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단원 목표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차시 목표	7-8차시 그림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그림책 <앗! 따끔!>은 그림의 비중이 더 높은 그림책이다. 그렇지만 그림이 세밀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꼭 필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그려졌다. 채색이 화려하지도 않다. 가는 검정색 펜으로 형태만 따라 그린 듯한 그림에 채색은

전혀 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새하얀 바닥과 벽, 문, 침대와 테이블 등 본래의 색이 흰색이 아닌데도 그림에는 하얗게 남겨져 있다. 거의 모든 장면의 배경은 흰색으로 남겨져 있고, 등장 인물들 위주로 채색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색조차 채도가 높지 않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연한 색일 뿐이다. 게다가 명암도 표현되지 않은 평면적인 표현의 그림이다. 다만 주인공 준혁이는 채도와 명도가 높은 원색 위주로 채색되어 있어 유달리 눈에 띈다. 사자가 된 준혁이는 진한 노란색, 주사 맞기 싫어하는 악어는 진한 초록색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악어가 주사를 맞는 순간의 배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온통 까만색으로 채워져 있다. 주사를 무서워하던 준혁이의 마음이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색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주인공은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채색은 주인공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준혁이의 마음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주제를 표현하고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색깔의 효과를 활용한 점이 돋보이는 그림책이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림 III-6] 그림책 <앗! 따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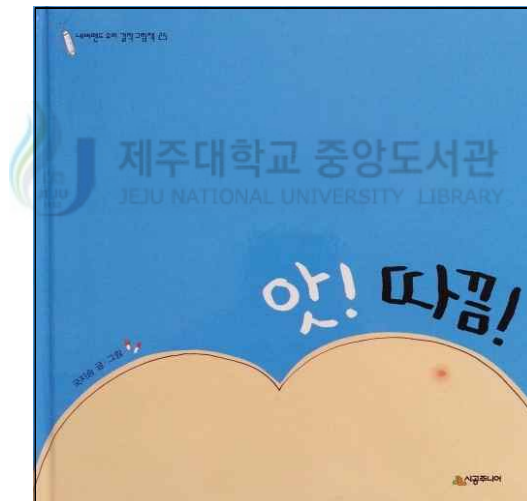
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내용은 상호 대응하지만 글보다 그림의 비중이 더 높다. 글은 장면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각 장면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글로 쓴 것이다. 많은 대화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글의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림 III-6]과 같이 병원에서 간호사가 “오준혁 어린이가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자. 이 때, 준혁이는 “난 오준혁 어린이 아니에요. 다람쥐라고요!”라고 말한다. 글만 읽었을 때에는 이

장면에서 왜 준혁이가 다람쥐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야기의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림을 보면, 왜 준혁이가 다람쥐인지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다람쥐가 되어 재빨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다. 글 하나만으로는 그림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림의 상황과 글의 상황이 일치하므로 내용이 대응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파라 텍스트

그림책의 표지는 하늘색 배경에 주사 자국이 남아 있는 엉덩이가 뚜렷하게 색칠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 그림책을 읽기 전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판형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이며 책장을 펼쳤을 때, 왼쪽과 오른쪽 장면이 하나로 연결된 장면을 많이 사용한다. 이 때는 정사각형이 가로가 두 배로 되므로 상당히 가로로 넓게 보여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III-7] 그림책 〈앗! 따끔!〉 표지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그림책 제재는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글보다 그림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단원 성취 기준의 [문학](5)에 적합한 제재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주사를 맞기 싫어했던 것과 같은 경험은 누구나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내용이므로 [1-2학년군]의 [국어 자료의 예]에 제시

된 그림책 관련 내용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이전 4~6차시에 걸쳐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는 법을 학습하고 난 후, 본 그림책 제재가 수록된 7-8차시는 ‘그림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가 학습목표이다. 이전 차시와 학습목표의 흐름이 적합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라는 단원의 목표에도 알맞은 내용이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본 그림책 제재는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들을 통틀어, 유일하게 그림책의 표지가 수록되었다. ‘앗! 따끔!’이라는 제목과 함께 주사 바늘 자국이 남아 있는 엉덩이가 그려진 표지이다. 대부분의 그림책 제재에서는 표지와 같은 파라 텍스트가 증시되지 않은 것에 비해 본 제재에서는 표지를 수록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원작 그림책의 특성을 살린 부분이 많다. 판형을 보면, 교과서의 가로와 세로 비율과 원작 그림책의 비율이 다르다. 그림책을 교과서의 판형에 그대로 맞춰서 수록하였다면 그림책을 세로로 길게 늘여야 했을 것이다. 또는 가로로 넓은 부분을 잘라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여백을 두고 그 안에 그림책 장면을 넣어, 원작의 판형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장면의 좌우 배치를 원작과 동일하게 하였다. 물론 원작 그림책의 모든 장면을 교과서에 수록하지는 않았다. 이야기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몇 장면이 제외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장면의 좌우 배치를 유지하고, 내용 전달에 핵심적인 장면들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그림책 제재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다.

그림책 제재가 그림책과 다른 부분은 글의 큰 따옴표이다. 원작 그림책에는 등장인물이 말을 한 부분의 글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표시하였다. 대화문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그림책의 모든 글이 대화문이기 때문에 다른 문장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굳이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원작 그림책만 볼 때에는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그림책 제재와 비교하며 읽었을 때에는 따옴표가 없는 것이 보다 더 깔끔하게 글을 정제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앗! 따끔!> 교과서 활동

1. '앗! 따끔!'의 표지 그림을 살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기
2. 병원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며 '앗! 따끔!' 읽기
3. '앗! 따끔!'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4. '앗! 따끔!'을 다시 읽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 있게 말하기
5. 자기가 준혁이라면 무슨 동물로 변하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보기.

(1) 성취 기준 수준

활동 1은 그림책의 표지 그림을 살펴보고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는 것이다. 표지에 적혀있는 제목 ‘앗! 따끔!’이라는 글과 다른 그림을 관련지어 이야기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을 예측해 보는 것은 [문학](5)의 성취 기준에 알맞은 활동이다. 활동 2는 일상생활의 경험과 관련지어 그림책 제재를 읽도록 하였다. 일상생활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는 [국어 자료의 예]에서 언급한 그림책의 종류이며,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글과 그림을 관련지어 읽도록 학습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성취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 3은 그림책 제재를 읽은 후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질문들 역시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해하며 제재를 읽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제재의 특성을 활용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다음의 항(제재 수준)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활동 4는 그림책 제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 있게 말하여 보는 것이다. 이는 ‘[듣기·말하기](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있게 말한다.’와 관련된 활동으로, 본 단원의 활동 중 그림책을 다른 언어 기능에 관련지어 수행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본 단원이 문학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활동과 관련지어 학습하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5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준혁이라면 무슨 동물로 변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므로 듣기·말하기 영역과 관련이 깊다.

(2) 제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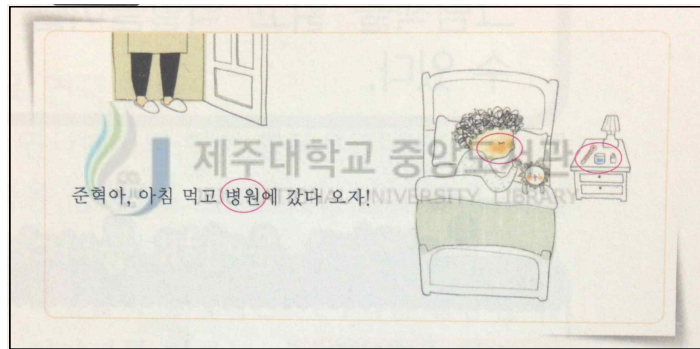
활동 1과 함께 제시된 그림은 1,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유일한 표지 그림이다. 그림책의 파라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활동으로도 유일할 것이다. 그림책의 제목인 ‘앗! 따끔!’이라는 글과 분홍색 반점이 그려진 엉덩이 그림을 관련지

어 생각해보도록 한 활동이다. 학생들은 주사를 맞는 상황이나 모기에 물린 상황 등, 자신의 그림책 제재의 글과 그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까지 관련지어 이야기를 예측할 것이다. 실제로 그림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예측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학습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제재의 특성을 잘 반영한 활동이다.

활동 3은 그림책 제재를 읽은 후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아래와 같은 질문들은 글과 그림을 관련지어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특히,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내용 확인 질문에서도 활용하여 제재의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 (1) 다음 장면에서 준혁이가 아픈 것을 알 수 있는 낱말과 그림에 ○표를 해 봅시다.
(글) (그림)

[그림 Ⅲ-8] <앗! 따끔! > 교과서 활동 그림



- (2) 준혁이가 말한 동물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림) (글)

[그림 Ⅲ-9] <앗! 따끔! > 교과서 활동 그림



(3) 학습자 수준

본 그림책 제재의 활동에는 그림책 제재의 그림이 반영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활동 1의 경우,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표지 그림을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 3의 (1)번 질문은 그림에 직접 동그라미를 그려보거나, (2)번 질문에서 동물 그림을 보고 그 이름을 알맞게 적어보는 것 역시,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1)번 질문에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준혁이의 상태를 글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거나, (2)번 질문에서 동물 그림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동물 이름들을 쓰도록 했다면 활동이 단조롭고 학생들은 쓰는 활동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활동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구성해내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낸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

3) 1학년 2학기 <책이 꿈지락꿈지락>

제목	책이 꿈지락꿈지락	교과서	21~34쪽
단원명	1. 느낌을 나누어요	차시	7~9/9
단원 성취기준	[문학](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학](5) 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단원 목표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		
차시 목표	그림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그림책 <책이 꿈지락꿈지락>의 그림은 대상을 상당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묘사하였다.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나무, 잔디밭, 작은 풀들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림에 나타난 책의 표지와 제목들은 작은 것도 세밀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이 그림책에서 ‘책’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범이는 마치 캐릭터처럼 몸에 비해 얼굴이 매우 크게 그려져 있어서 마치 만화 캐릭터를 보는 것 같다.

[그림 Ⅲ-10] 그림책 <책이 꼼지락꼼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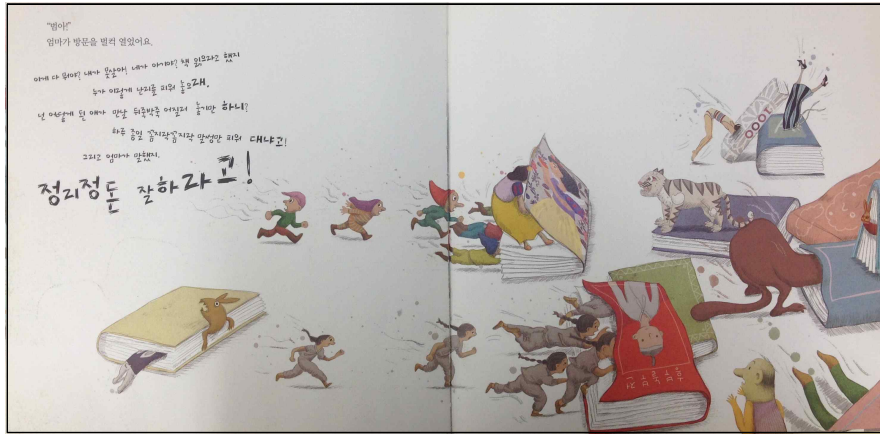
[그림 Ⅲ-3]과 같이 한 장면에서 범이가 여러 명 그려져 있는 장면은 범이가 실제로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이가 움직이는 동선을 보여주고 있다. 책으로 집을 짓는 과정을 한 화면에 그려낸 것이다. 집이 지어진 정도를 살펴보면 시계 방향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을 그려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한 장면이 정지된 순간을 그려내면서도 시간의 흐름과 움직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효과이다. 그림의 이러한 효과도 그림책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림책을 펼쳤을 때, 양면은 그림 <Ⅲ-3>처럼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연결된 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연결된 한 장면으로 제시될 때에는 화면에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제시한다. 이 때, 독자는 그림에 그려진 대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책의 등장인물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림책 <책이 꼼지락꼼지락>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글과 그림의 관계가 많이 나타난다. [그림 Ⅲ-11]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글은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라고 되어 있으나, 그림에는 엄마의 모습이나 열린 방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빠져나왔던 책 속으로 재빨리 들어가는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글의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또는 바로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함께 작용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나가는 구조이다. 하지만 그림책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것은 아니다. [그림 Ⅲ-10]과 같이 대응관계에 있는 장면도 있다. 즉, 글과 그림의 관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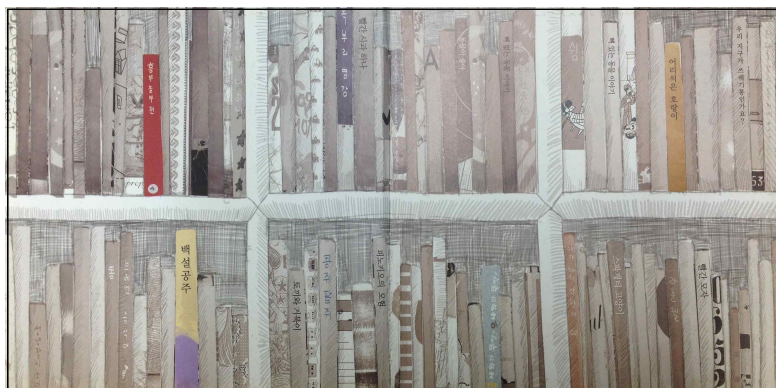
[그림 Ⅲ-11] 그림책 <책이 꿈지락꿈지락>



(3) 파라 텍스트

그림책의 기본 판형은 가로로 조금 넓은 모양이지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양면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느낌이 드는 판형이다. 그리고 그림책의 속표지에는 [그림 Ⅲ-12]와 같이 책의 내용에서 등장했던 책 주인공들의 책들이 꽂혀있는 책꽂이가 그려져 있다. 아무 의미 없이 속표지를 여백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이렇게 책의 제목들까지 자세하게 적어 두어 독자들로 하여금 본문과 연결지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Ⅲ-12] 그림책 <책이 꿈지락꿈지락> 속표지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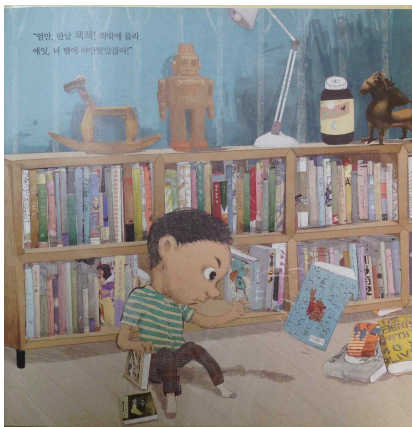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단원의 성취기준은 모두 문학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문학](5)글이나 말을 그림, 동영상 등과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성취기준에 따라 본 단원에는 애니메이션, 그림책과 같은 제재들이 있으며, 이 중 그림책은 <책이 꿈지락꿈지락>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책 <책이 꿈지락꿈지락>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에서 책을 읽지 않아서 잔소리를 듣거나, 여러 가지 일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던 경험들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단원 학습목표인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와 차시 학습목표 '그림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에도 적합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그림책 제재에서는 그림책의 전체 내용을 수록하되, 전체 분량을 축소하였다. 글 내용도 다소 줄어들었고, 그림 장면도 제외된 부분이 많다. 하나의 그림에 여러 페이지에 걸친 글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III-13]와 [그림 III-14]는 같은 그림이지만 글의 내용이 다르다. 글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3] 그림책 <책이 꿈지락꿈지락>



[그림 III-14] 그림책 제재 <책이 꿈지락 꿈지락>



<표 III-4> <책이 꼼지락꼼지락>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글 비교

그림책 <책이 꼼지락꼼지락>	그림책 제재 <책이 꼼지락꼼지락>
“엄만 만날 책책 책밖에 몰라. 예잇, 너 땀에 야단맞았잖아!”	“범아! 엄마가 말했지. 하루 종일 게 임만 하지 말고 책 좀 보라고!” “알았어요. 엄만 만날 책밖에 놀라. 예잇, 너 땀에 야단맞았잖아.”

그림책 제재에 있는 글은 원작 그림책에서 세 장면에 걸쳐서 제시된 글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그림책 제재의 분량을 줄이면서 전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글과 그림의 내용이 알맞게 어울리고 있어서 읽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다. 하지만, 원작 그림책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던 범이가 쏟아지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장면, 범이가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다면 이 제재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범이의 감정에 대해 좀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본 차시에서는 범이가 책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 즐겁게 노는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위해 도입부에서 이렇게 글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글의 내용을 압축하고 줄여서 제시함으로써 인해, 원작 그림책에서는 <그림 III-5>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가 대응 관계였던 것에 비해 그림책 제재에서는 상호 보완 관계로 변화되었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책이 꼼지락꼼지락> 활동

1. 자기가 읽은 책에 ○표를 하거나 책 이름을 써 붙인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하여 말하기
2. 범이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책이 꼼지락꼼지락' 읽기
3. '책이 꼼지락꼼지락'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4. 그림을 보고 책에 대한 범이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하기
5. '책이 꼼지락꼼지락'을 다시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6. 범이 엄마가 나간 뒤에 어떤 책들이 꼼지락거릴지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1) 성취 기준 수준

활동 1은 읽기 전 활동으로, 학생이 책을 읽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이든 자신의 감상이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되어 있다.

다소 막연할 수는 있지만, 학습의 도입에 제시된 문항이며, 성취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문항으로 보인다. 활동 2는 제재의 내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4는 범이의 생각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데, 이 때 그림책 제재의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책 제재의 초반부에 범이가 책을 싫어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범이가 책을 들고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달라진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범이의 표정이 달라진 그림을 보고 범이의 생각을 파악하도록 하는 활동은 그림책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이다. 이 활동 역시 문학 (5) 성취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 5와 6은 본 차시의 학습목표와 직결되는 활동이다. 그림책 제재를 다시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책의 뒷 이야기를 상상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2) 제재 수준

활동 3에서는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 그림책 제재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림 III-4>와 같이 본 그림책 제재는 글과 그림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장면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글과 그림을 모두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그림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3에서는 글과 그림의 내용을 모두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제시되어야 적절하다. 하지만 활동 4와 같이 그림책 제재의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한 점은 긍정적이다.

(3) 학습자 수준

전체적으로 활동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다. 활동 1~4는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 5와 6에서야 비로소 학습목표와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학습자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학습 목표를 그대로 서술한 활동 문항이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림책 제재를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4) 2학년 1학기 <으악, 도깨비다!>

단원명	1. 아, 재미있구나!	차시	7~8차시, 9~10차시
단원 성취기준	[문학](2)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 [읽기](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문학](1) 동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단원 목표	반복되는 말이나 재미있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나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차시 목표	7-8차시 이야기를 읽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있다. 9-10차시 재미있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장승들의 표정이 매우 익살맞게 그려져 있으며 풍부한 색의 표현이 눈에 띈다. 그림책의 내용 상, 밤과 낮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낮 시간의 장면에는 녹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밝은 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밤 시간의 장면에서는 파란색 계열의 어두운 색을 많이 사용하여 시간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색의 변화는 그림책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낮은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밤은 어둡고 불길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책 내용에서도 장승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은 주로 밤이다. 멧쟁이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사건들은 모두 밤에 일어난다. 밤의 어두운 분위기는 이러한 사건들과 어울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다양한 장승들의 표정을 실감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원래 장승은 과장된 표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특징이 그림책의 그림에도 반영되어, 장승들의 화난 표정, 즐거운 표정, 시무룩한 표정 등이 과장되면서도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준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글과 그림의 관계는 서로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대응 관계이다. 전체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 그림보다 글의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림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등장 인물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도움

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림책에 등장하는 여러 장승들의 외모를 파악하고 특징을 구별할 수 있어야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칠 뿐, 내용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3) 파라 텍스트

그림책의 판형은 가로에 비해 세로가 조금 더 긴 판형이다. 장승들의 생김새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그림책의 판형 역시 세로로 긴 것이 장승들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단원 성취기준 중 '[문학](2)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는 그림책의 글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글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손정원, 2002)

기차 타고 쿵쿵, 버스 타고 툼툼, 다시 타박타박 만나절을 가면

또한, 통눈이 장승, 주먹코 장승 등, 장승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말이다. 본 차시 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재미있는 말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본 그림책 제재는 말의 재미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서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기에서 이야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본 그림책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의 흐름이며, 본 차시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재미있는 말'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즉, 본 그림책 제재에 재미있는 말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된 요소가 아니므로 그림책 제재를 위주로 학습할 경우, 재미있는 말을 찾는 것은 부수적인 활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미있는 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려면, 반복되는 말이나 흥내내는 말이 전체 이야기의 재미를 좌우하는 제재를 수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읽기](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라는 성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그림책 제재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분위기가 상황에 따라 자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읽는 활

등을 하기에 적합하다. 요약하면, <으악, 도깨비다!>는 말의 재미보다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살려 낭독함으로써 읽기의 재미를 느끼는 학습에는 적절하지만, 세부적인 요소인 ‘재미있는 말’과 관련된 학습을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제재이다.

또한, 단원 성취기준 및 차시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본 그림책 제재가 그림책으로서 수록된 것이 아니라 글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그림책 제재 <으악, 도깨비다!>는 원작 그림책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다만, 중간에 몇 가지 장면이 삭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분량을 줄이려는 의도에 따라, 그림 장면을 줄인 만큼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의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림책 제재는 원작 그림책보다 글의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었으며 그림은 글의 삽화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원작 그림책에는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 장에 등장 인물 장승들이 모두 그려져 있고, 각각의 장승에게 이름과 성격,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한 말풍선을 함께 그려 놓았다. 그러나 그림책 제재에는 이런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등장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으악, 도깨비다!> 활동

• 7-8차시

1. 재미있는 말을 떠올리며 장승에 이름을 붙이기
2. 재미있는 말을 찾으며 ‘으악, 도깨비다!’를 읽기
3.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4. ‘으악, 도깨비다!’를 다시 읽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말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보기

- 〈으악, 도깨비다!〉 활동

• 9-10차시

1. 재미있는 말을 생각하며 ‘으악,도깨비다!’를 계속 읽기
2.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3.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다음을 소리 내어 읽어 보기. 그리고 느낌을 살려 잘 읽은 친구를 칭찬하기

(1) 성취 기준 수준

• 7-8차시

7-8차시의 차시 목표는 재미있는 말을 찾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어, 학습 활동들 역시 이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활동 1은 읽기 전 활동으로, 장승의 생김새를 보고 재미있는 말을 사용하여 이름을 붙이도록 하였다. 활동 2는 ‘재미있는 말’을 생각하며 그림책 제재를 읽도록 하였고, 활동 4는 제재를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학](2)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와 관련된 활동이다. 또한, 재미있는 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도록 하고 있으므로 ‘[읽기](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와도 간접적으로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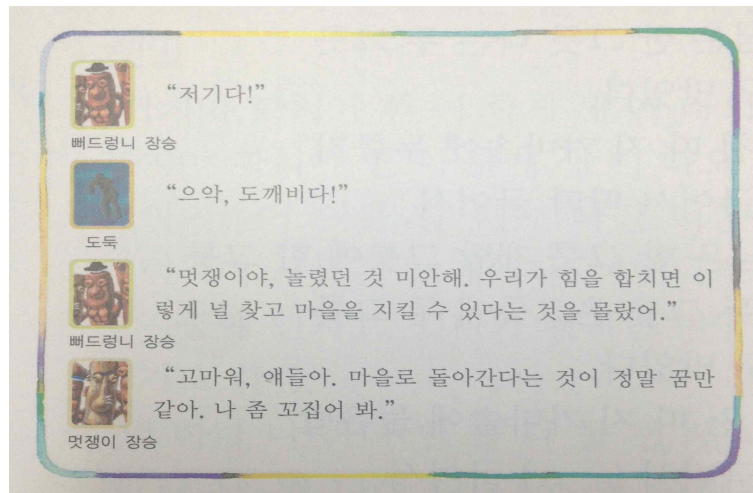
• 9-10차시

9-10차시에서는 재미있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 이전 차시에 비해 보다 심화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활동 1에서 재미있는 말을 생각하며 제재글을 읽는 것은 이전의 7-8차시와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이다. 그리고 활동 3은 느낌을 살려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읽기](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와 관련되는 활동이다. 하지만 활동 3에 제시된 짧은 역할 대본에는 ‘재미있는 말’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학습 목표는 재미있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도록 하였지만, [그림 III-15]와 같이 제시된 대본은 재미있는 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성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야기의 분위기를 살려 읽는다면 적합하지만, 학습 목표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미있는 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재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초점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5] 2-1 교과서 42쪽 활동 3의 대본



(2) 제재 수준

- 7-8차시

활동 4는 제재글에서 재미있는 말을 찾는 활동이다. 본 단원에서는 반복되는 말, 흉내내는 말을 재미있는 말로 안내하고 있는데 본 그림책 제재에서는 반복되는 말이나 흉내내는 말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이야기의 도입부에 ‘기차 타고 쿵쿵, 버스 타고 툼툼...’과 같이 반복되는 말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말들이 전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재의 특성이 성취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 제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9-10차시

활동 3에서 제시한 짧은 역할극 대본 <그림 III-15>를 보면 등장인물의 그림이 작게 제시되어 있다. <으악, 도깨비다!>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은 그 생김새를 따라 지어진 이름이므로, 이와 같이 그림과 함께 등장인물이 제시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적합하다. 또한, 글의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본 제재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적절하게 선정되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도둑에게 잡혀가는 멧쟁이를 구출하는 흥미진진한 분위기,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고마워하고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에 기뻐하는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3) 학습자 수준

• 7-8차시

활동 3에서 ‘재미있는 말’이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교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미있는 말은 반복되는 말, 흥내내는 말이라는 내용을 본 단원의 이전 차시에서 학습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재미있는 말을 찾을 수도 있지만,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 3과 같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까닭을 밝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주관적인 견해를 설명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본인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까닭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2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므로 교과서에서 의도하는 만큼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차시에서는 활동 3과 같이 재미있는 말이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9-10차시

활동 3과 같은 짧은 역할극은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소재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쉽게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그림 III-1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본이 이야기를 매우 축약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어떤 장면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느낌을 잘 살려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2학년 1학기 <오소리네 집 꽃밭>

단원명	10. 이야기 세상 속으로	차시	2-3차시, 4-5차시
단원 성취기준	[문학](3)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듣기·말하기](4)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단원 목표	이야기를 읽고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일이 일어난 차례에 맞게 말할 수 있다.		
차시 목표	2-3차시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그림책 <오소리네 집 꽃밭>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오소리이다. 오소리는 사람처럼 옷도 입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사람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소리 역시 사람처럼 집에 살면서 도구를 사용하여 밭을 가꾸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과 달리, 오소리의 모습만 보았을 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소리 아줌마는 빨간 바지를 입고 있고, 오소리 아저씨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러한 색깔이 없다면 어느 오소리가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구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채색이 또렷하게 되어 있는 오소리와 달리,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채색되지도 않고, 형태만 검은 선으로 그려져 있다. 사람들은 배경에 가까운 존재이며 주요 등장 인물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색은 주인공이나 주요 대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검은 선으로 형태만 그린 것과는 달리, 주요 인물인 오소리는 뚜렷하게 채색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꽃들을 다양한 색으로 화려하게 채색하였다.

그리고 오소리가 장소를 이동하거나 땅을 파는 등, 움직임이나 나타내는 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오소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 그림에서 동체가 느껴진다. 예를 들면 오소리 아줌마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모습,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꽃밭을 가꾸기 위해 오소리 아저씨가 밭을 일구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정지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달려가는 듯한 역동성이 느껴진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글과 그림은 서로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응관계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림이 더욱 세밀하게 묘사되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꽃의 생김새나 꽃밭의 풍경 등은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이 더욱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그림에 의해 글의 내용이 더욱 정교화 된다. 또한 어린이 독자의 경우에는 토끼, 여우, 호랑이 등에 비해 오소리는 낯선 동물이다. 비록 오소리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려져 있으므로 오소리를 처음 보는 독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3) 파라 텍스트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판형이며, 그림책을 펼쳤을 때는 가로로 길게 펼쳐진다. <오소리네 집 꽃밭>에서는 특히 이 넓게 펼쳐진 좌우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장면이 많다. 오소리 아줌마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장면에서는 좌우 면에 넓게 산골마을의 풍경이 펼쳐진다. 시장에서 빠져나온 오소리 아줌마가 어느 학교 꽃밭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에서도 좌우 양면에 꽃이 가득하게 그려져 꽃밭의 아름다움이 더 크게 와 닿는다.

[그림 III-16] 그림책 <오소리네 집 꽃밭>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차시의 학습목표는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이며 이것은 성취기준 [듣기·말하기](4)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전 차시에서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이 일어난 차례를 알아보는 학습이 선행되고, 본 차시는 이에 대한 적용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책 제재 <오소리네 집 꽃밭>은 오소리 아줌마가 장소를 이동하는 것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에 적합하다. 비록 그림책의 모든 그림이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동하는 장소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들을 수록하여, 학생들이 그림을 함께 보며 장소의 변화를 인식하기에도 용이하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그림책의 전체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그림들 중 일부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림은 수록되지 않더라도 글은 다른 그림장면과 함께 수록된 경우도 있고, 좌우 양면

에 걸쳐 그려진 한 장면의 그림은 한 면으로 작게 편집되어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과서 분량을 고려하여 그림의 편집이 일어난 경우로 보인다. 이러한 편집으로 인하여 내용 전개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으나, 그림책 고유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 예로, 오소리 아줌마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학교 울타리를 들여다 보는 장면은 원작 그림책에서는 <그림 III-15>와 같이 좌우 양면에 걸쳐서 크게 그려져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왼쪽의 꽃밭이 그려진 면은 잘라내고 오른쪽 면만 교과서에 수록하였다. 하지만 오른쪽 면 역시 전체가 수록된 것은 아니며 오소리 아줌마가 있는 부분을 확대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때 오소리 아줌마의 시선은 꽃밭이 아니라 꽃밭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이유는 오소리 아줌마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소리 아줌마의 위치는 오른쪽 면에서도 오른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원작 그림책과 같이 왼쪽에 위치했다면 오소리 아줌마의 시선 방향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으므로 오소리 아줌마가 꽃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제재의 그림은 마치 오소리 아줌마는 꽃밭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오소리네 집 꽃밭> 활동

1. 장소의 변화를 생각하며 '오소리네 집 꽃밭' 읽어보기
2. '오소리네 집 꽃밭'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3. '오소리네 집 꽃밭'에서 일이 일어난 장소를 차례대로 찾아보기
4. '오소리네 집 꽃밭'을 다시 읽고 일이 일어난 장소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차례를 정리하기
5. 일이 일어난 장소의 변화에 따라 '오소리네 집 꽃밭'의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보기

(1) 성취기준 수준

활동 1은 성취기준 및 차시 학습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이다. 장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하며 그림책 제재글을 읽도록 하여, 그림책 제재를 읽기 전, 글의 내용에서 장소의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활동 2는 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총 3개의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3개의 질문 모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오소리 아줌마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으며

로 성취기준 및 학습 활동과 잘 연관되어 있다. 활동 2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오소리 아줌마가 읍내 장터에서 본 것은 무엇무엇인가요?

(장소)

(2) 오소리 아줌마는 학교 안을 들여다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장소)

(3) 오소리 아줌마네 집 둘레에 꽃밭을 만들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장소)

활동 3은 본 그림책 제재에서 일이 일어난 장소를 차례대로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은 일이 일어난 장소의 차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장소의 변화와 일이 일어난 차례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활동 4는 일이 일어난 장소와 각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장소의 차례와 이야기의 순서를 연결 지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재 수준

본 그림책 제재에는 장소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처음에 오소리 아줌마가 산골 마을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려 가는 모습, 읍내 장터, 학교 안 꽃밭, 오소리네 집의 모습이 모두 그림책 제재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활동 중에는 이런 그림 자료를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3) 학습자 수준

활동 3에서는 일이 일어난 장소를 차례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는데, 이야기에 나타난 장소들은 부록의 붙임 딱지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습자는 붙임 딱지 중에서 알맞은 순서대로 빈 칸에 붙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활동 3과 활동 4에서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 3에서는 장소의 이동 순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활동 4에서는 각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요약하였다. 그래서 전체 일이 일어난 순서를 장소의 변화와 연관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활동 구성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 문법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

1) 1학년 1학기 <기차 기차>

제목	기차 기차	교과서	38~53쪽
단원명	2. 재미있는 날자	차시	7~9차시
단원 성취기준	[문법](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쓰기](1)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단원 목표	한글 낱자를 알고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다.		
차시 목표	같은 날자가 들어간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기차 기차>의 그림에는 원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마치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형태나 채색이 조금씩 엉성하고 불균형하게 보인다. 장면에 따라 서로 다른 구도가 사용되었으며 매 장면마다 등장하는 기차는 정지된 화면 속에서도 어디론가 달려가는 느낌이 들도록 그려져 있다. 이 그림책에서의 주인공인 빨간 기차에는 다른 사물과는 달리 외곽선이 그려져 있다. 기차의 빨간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아서 작게 그려져 있어도 눈에 잘 띄며 경쾌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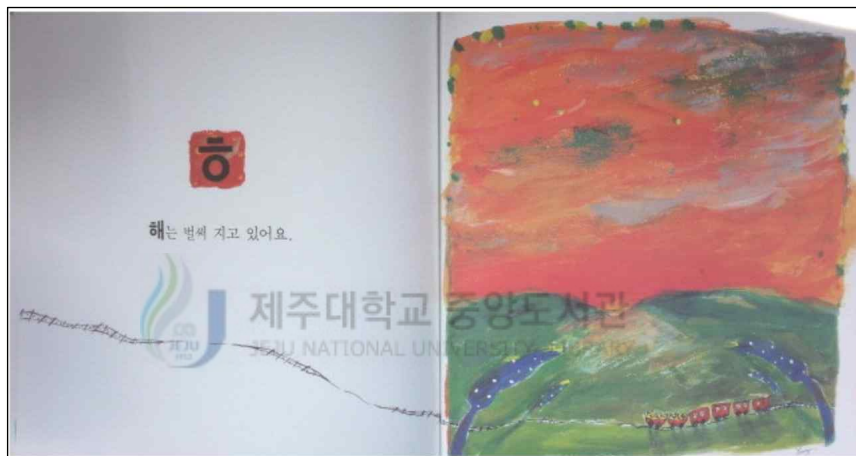
(2) 글과 그림의 관계

글과 그림은 서로 대응하며 글에 비해 그림의 비중이 훨씬 높다. 글은 단순히 기차가 현재 지나가고 있는 장소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림은 글이 가리키고 있는 장소를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을 보지 않아도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글의 내용은 그림을 보지 않는다면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내용일 뿐이다. 또한 글과 그림이 서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대응 관계에 있으므로 이 그림책을 입문기 학생을 위한 문자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3) 파라 텍스트

그림책 <기차기차>은 책을 펼쳤을 때 양면이 한 장면을 이루고 있다. 왼쪽은 글, 오른쪽은 왼쪽의 글과 대응하는 그림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글과 그림의 배치 순서에 의해 독자는 글을 먼저 읽고 난 후, 그림을 보게 된다. 그리고 글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요 자음이 먼저 크게 제시되어 있어, 해당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해당 자음이 들어 있는 단어는 다른 글씨보다 크고 두껍게 되어 있어,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쉽게 자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림 III-17] 그림책 <기차기차>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차시 학습 목표는 ‘같은 날자가 들어간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자를 인식하며 글자를 익히기에는 매우 용이한 제재이다. 한글의 ㄱ부터 ㅎ까지 순서대로 관련 낱말들과 그림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선호를 고려한 낱말들이 많아 학생들이 즐겁게 제재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책에서는 자음자에 대한 이야기만 제시되어 있을 뿐, 모음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으므로, 본 그림책만으로 이 차시를 모두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과 그림의 화면 배치이다. 원본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서로 다른 면에 배치하여 왼쪽에는 글, 오른쪽에는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림책 제재는 이러한 글과 그림을 한 화면에 배치하여 그림 아래 글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의 차이로 인하여 글과 그림을 인식하는 순서도 달라졌다. 그림책은 왼쪽의 글을 먼저 읽고 난 후, 오른쪽의 그림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림책 제재는 그림을 먼저 보고 난 후, 아래의 글을 읽게 되는 배치 형태이다. 이렇게 글과 그림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은 글과 그림을 인식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므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⁹⁾ 물론, 교육적인 의도에 의해서 글과 그림의 배치를 원작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교과서 제재가 반드시 원작과 동일하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차시의 학습목표는 자음자, 모음자에 유의하며 낱말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본 차시는 단원의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으며 적용 학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쉬운 낱말들과 자음자, 모음자에 대하여 이전에 익히고 난 후, 이것을 적용하여 글을 읽어보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 그림책과 같이 글을 먼저 제시하여 학생들이 낱말에 먼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기차 기니디> 활동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떤 자음자와 모음자가 들어 있는지 생각하며 '기차 기니디'를 읽기 2. 낱말에 어떤 자음자와 모음자가 들어 있는지 살펴보기 3.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잇고 따라 써 보기 |
|---|

(1) 성취 기준 수준

활동1, 2는 ‘문법’ 성취 기준과 관련된 활동이고, 활동 3은 ‘쓰기’ 성취 기준과 관련된 활동이다. 문법에서는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림책 제재를 읽으면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도록 하는 활동은 적절하다. 또한, <기차 기니디>이 수록된 차시는 본 단원에서 마지막 7-9차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전 차시에서 익힌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과 소릿값을 본 차시에서는 그림

9) Sipe의 기호 삼각형

책 제재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적용해보도록 하고 있다.

‘쓰기’ 영역 성취 기준과 관련된 활동 3에서는 그림책 제재에 등장한 낱말 2개를 따라 쓰도록 하고 있어, 성취 기준과 직결되는 활동이다.

그런데 차시 목표는 ‘같은 낱자가 들어간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같은 낱자가 들어간 낱말에 대한 학습은 활동 2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낱말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은 구성되지 않았다. 활동 2에서 공통된 낱자가 있는 낱말을 찾은 후, 그 낱말들을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을 정확히 제시하거나, 그림책 제재를 다시 읽으면서 주어진 낱말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활동이 제시되었다면 차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단원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실현하는데 충실하게 구성된 학습 활동이긴 하지만, 보다 구체화된 차시 학습 목표를 실현하는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재 수준

본 제재는 한글 자음의 순서대로 중심 낱말을 제시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한글 자음의 ㄱ, ㄴ, ㄷ,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음자를 인지하며 학습 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제재이다.

활동 1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생각하며 읽어보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그림책 제재가 자음자의 순서대로 구성된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글씨가 크게 제시된 낱말들은 좀 더 유의하여 읽을 수 있다.

활동 2와 3에 제시된 낱말들은 그림책 제재에서 큰 글씨로 표시된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활동 1을 하며 제재를 읽는 동안 학생들이 이미 주의 깊게 살펴본 낱말들이다. 그림책 제재의 글을 적절히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활동 3에서는 낱말과 이에 알맞은 그림책 제재의 그림을 제시하여 같은 의미끼리 연결 짓도록 하고 있다. 그림책 제재의 글과 그림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활동은 제재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학습자 수준

입문기 수준의 학생들에게 많은 글을 쓰게 하거나 복잡한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제재에 등장한 낱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활동이다. 또한 그림책 제재 중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읽어야 하는 부담이 적다.

2) 1학년 1학기 <바람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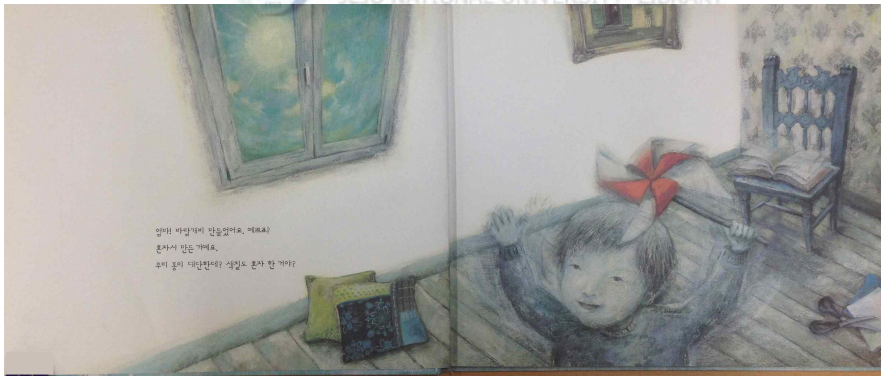
제목	바람이 좋아요	교과서	226-237쪽
단원명	7. 알맞게 띄어 읽어요	차시	6-7차시
단원 성취기준	[읽기](3)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문법](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단원 목표	문장 부호의 쓰임을 생각하며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차시 목표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그림책 <바람이 좋아요>의 그림은 책을 펼쳤을 때, 좌우로 보이는 양면 모두를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III-18] 그림책 <바람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색이 뚜렷하지 않고, 명도와 채도가 낮아 어둡고 흑백에 가깝게 느껴지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주요 대상들에는 강한 원색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주의를 끄는 것이 특징이다. 첫 장면인 [그림 III-16]에서는 주인공 '통이'가 자신이 만든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데, 주인공조차 다른 배경과 비슷하게 채색되어 있다. 반면에 바람개비는 선명한 빨간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색이 뚜렷하게 사용된

대상들을 살펴보면 바람에 떠다니는 민들레 씨앗, 바람에 흔들리는 우산, 풍선, 생일 케이크의 초 등과 같이 주로 바람과 연관된 것들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상들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2) 글과 그림의 관계

글과 그림은 서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글의 상황과 그림의 상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글은 엄마와 아이의 대화로 되어 있어 글만 읽었을 때에는 마치 아이의 곁에 엄마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림에는 엄마가 등장하지 않으며 아이 혼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엄마는 그림책 바깥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또는, 독자 자신이 마치 엄마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3) 파라 텍스트

표지만 보았을 때, 그림책의 판형은 세로보다 가로가 조금 더 넓은 비율이다. 하지만 그림책을 펼치면 좌우의 면을 모두 활용하여 한 장면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로 훨씬 긴 그림책처럼 느껴진다.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 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단원의 성취 기준은 [읽기]와 [문법]이며 그림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차시 학습 목표 역시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로 그림책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본 단원에서는 문장 부호를 학습하는 차시와 관련지어 볼 때, 본 그림책 제재는 이에 대한 적용 학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엄마와 아이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 그림책 제재의 글에는 여러 가지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차시에서 반점, 느낌표, 온점, 물음표를 학습하였는데, 본 제재에 글에는 이 문장 부호가 여러 차례 활용되어 있다. 즉, 본 그림책 제재에서 글 부분은 성취 기준 및 학습목표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그림은 관련되지 않고 있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바람이 좋아요>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차이는 그림의 배열과 글의 배열로 볼 수 있다. 우선, 그림책에서는 좌우 양면에 걸쳐 넓게 그려졌던 그림들이 한 면

에 편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원작 그림의 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한 장면의 특정 부분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글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띄어쓰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원작 그림책에서 ‘신나게’라고 붙여 쓰여 있는 단어가 그림책 제재에는 ‘신 나게’로 수정되어 있다. 이는 띄어쓰기 규칙에 맞게 원작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맞춤법을 준수해야 하는 교과서의 특성 상 불가피한 수정이다. 한편, 교과서 229쪽 글의 2-3줄의 문장은 원작 그림책에서 한 줄로 적혀있었으나 그림책 제재에서는 두 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줄로 나뉜 것이 내용 전달이나 본 차시의 학습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가독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한 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바람이 좋아요> 활동

1.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며 ‘바람이 좋아요’를 읽기
2. ‘바람이 좋아요’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
3. 문장 부호의 쓰임에 맞게 문장 읽기
4. 문장 부호에 알맞게 ‘바람이 좋아요’를 다시 읽기
5. 바람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하기

(1) 성취 기준 수준

문법 영역의 문장 부호의 학습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활동 3, 4는 이러한 성취 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읽기 영역에서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읽도록 하는 것은 문법 영역에 비해,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활동 3, 4와 관련이 깊다. 활동 1, 2, 5는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와 직결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림책 제재의 내용 파악을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으로 성취 기준 및 학습목표에 연관되지는 않지만 띄어 읽기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글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학생들이 그림책 제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제재 수준

활동 2의 ‘(2) 바람이 하는 일은 무엇무엇인가요?’ 질문에는 그림책 제재의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림을 보고 바람이 하는 일을 답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의 의도이다. 그림책의 제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동에 그림을 활용하고 있으나, 글과 그림의 관계가 드러나는 활동은 아니다. 본 차시는 그림책 제재의 고유의 특성보다는, 그림책 제재의 글 부분을 바르게 읽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활동 3에서는 그림책 제재의 글 중 일부를 제시하고, 문장 부호의 쓰임에 맞게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 3은 본 차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그림책 제재의 그림 없이 오직 글 부분만을 활용하고 있어 그림책 제재의 그림은 본 차시의 활동을 해결하는데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차시에서는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그림책 제재가 지닌 글과 그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로 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학습자 수준

이전 차시에서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을 적용하는 차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다. 활동 3, 4는 이전 차시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습의 난이도나 양의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 적용 차시임에도 활동 3에서 제재의 일부분을 연습한 후 활동 4에서 제재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학생의 학습 능력과 단계를 고려한 활동이 구성된 점은 적절하다.

3) 2학년 2학기 <설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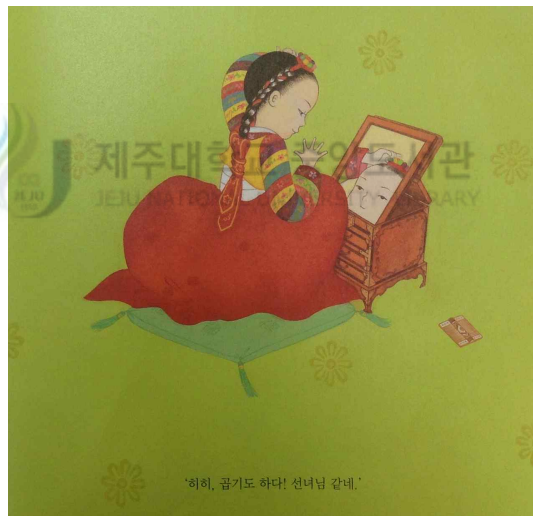
단원명	4. 어떻게 정리할까요?	차시	3-4차시
단원 성취기준	[읽기](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문법](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문법](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단원 목표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차시 목표	3~4차시. 글을 읽고 뜻이 비슷한 낱말과 반대인 낱말을 안다.		
활동 구성	1. 그림을 보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을 살펴보기 2. 낱말의 관계를 생각하며 '설빔'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기 3. '설빔'을 읽고 파란색으로 쓴 낱말의 관계를 살펴보기 4. '설빔'에서 뜻이 비슷한 낱말이나 반대인 낱말을 더 찾아보기		

가) 그림책의 특성 분석

(1) 그림

<설빔>은 매우 세밀한 묘사가 특징이다. 한복의 무늬, 옷의 주름을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다양하고 뚜렷한 색깔로 채색하였다. 그리고 한복을 입는 등장인물의 움직임과 표정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장면에서 배경은 단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명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대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하지만 배경이 단순하게 채색이 된 것은 아니며 <그림 III-19>에서 볼 수 있듯이 한복 천에서 볼 수 있는 무늬가 열게 그려져 있다. 마치 한복 천을 등장인물의 뒤에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등장인물은 그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다른 대상은 거의 그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의 표현과 등장인물의 위치는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III-19> 그림책 <설빔, 여자아이 고운 옷>



(2) 글과 그림의 관계

<설빔>에서는 글과 그림의 관계는 대응 관계이면서도 글이 그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대체로 그림의 모습을 글이 설명을 하고, 그림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림에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강조되지 않는 부분들을 글이 언급함으로써 정교화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한복의 많은 특징을 표현하기에는 글이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한복을 입는 방법 중 세부적인 방법이나 한복의 색깔, 모양 등은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글만 읽고서는

어린이 독자들이 한복을 입는 과정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즉, 글에서는 그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들 중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덧붙여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빔>에서의 글은 단순히 설명 이상의 역할을 한다. 등장인물의 혼잣말을 보여주며 한복을 입는 설렘과 즐거움을 나타낸다. <그림 III-19>에서는 땡기를 예쁘게 묶은 여자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히히, 곱기도 하다! 선녀님 같네.”라고 말하고 있다. <설빔>은 한복을 소개하는 ‘정보 그림책’의 종류에 속하며 글의 대부분은 한복을 입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어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조로만 글이 진행된다면 어린이가 읽기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이 진행되는 중간에 어린아이가 한복을 입으며 감탄하는 말, 한복을 잘못 입고는 멋쩍게 하는 혼잣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친근함을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설빔>에서는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며 분위기를 형성하고, 내용을 전달한다.

(3) 과라 텍스트

<그림 III-21> 그림책<설빔 여자아이 고운 옷> <그림 III-22> 그림책 <설빔 남자아이 멋진 옷>



그림책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판형이다. <설빔, 여자아이 고운 옷>, <설빔, 남자아이 고운 옷>의 표지의 그림은 각 그림책의 본문 그림 중 한 장면의 그림이다. 두 책의 표지는 각각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그려진 위치, 제목이 적혀있는 위치도 같다. 두 책 모두 한 작가의 작품이며, 이렇게 형식을 유사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책이면서도 서로 관련성을 드러

내고 있다.

나) 그림책 제재의 특성 분석

(1)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단원 성취 기준 중 [문법](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와 관련되어 ‘글을 읽고 뜻이 비슷한 낱말과 반대인 낱말을 안다.’라고 설정되어 있다. 이 그림책 제재를 보면 일부 낱말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학습 목표에 따라 낱말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여야 하는 낱말들을 표시한 것이다. ‘예쁜’, ‘고운’, ‘아랫도리’, ‘윗도리’ 등과 같은 낱말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낱말들을 활용한 학습은 활동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낱말들은 원작 그림책의 본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일 뒷 부분에 한복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제시된 것을 그림책 제재에 삽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작 그림책과 글의 구성이 많이 달라졌으나 본 그림책 제재는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은 더욱 높아졌다.

(2)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의 비교

본 그림책 제재는 원작 그림책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그림책 제재는 다른 그림책 제재와는 달리 두 권의 그림책을 통합한 것이다. <설빔, 여자아이 고운 옷>과 <설빔, 남자아이 멋진 옷>이라는 별도의 그림책을 하나로 통합, 편집하여 그림책 제재 <설빔>으로 교과서에 수록하였다. 두 권의 그림책 모두 한복을 입는 순서를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하는 단계의 구성도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재로 편집하여도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원작 그림책의 그림이 매우 작게 축소되어 제시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그림책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그림책 제재에는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원작 그림책에는 그림책의 본문이 아닌, 뒷 부분의 부록에 한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설명을 교과서 제재에서는 그림책의 본문과 혼합하여 제시하였다. 부록에 실린 한복에 대한 설명과 원작 그림책의 글 부분을 그림책의 장면 흐름에 맞게 제시하였다. 두 가지 글의 문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제재에서 각기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작의 부록을 편집한 글 부분은 한복에 대한 정보 전달을 담당하고, 그림책의 글 부분은 여자아이와 남자 아이가 한복을 입으면서 느끼는 마음을 담당하고 있다. 글의 역할이 서로 중복되

지 않으며 한복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글이 매우 압축적으로 제시되었고, 그림도 한 페이지에 여러 장면을 축소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다) 교과서 활동 분석

- <설빔> 활동

1. 그림을 보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을 살펴보기
2. 낱말의 관계를 생각하며 '설빔'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기
3. '설빔'을 읽고 파란색으로 쓴 낱말의 관계를 살펴보기
4. '설빔'에서 뜻이 비슷한 낱말이나 반대인 낱말을 더 찾아보기

(1) 성취 기준 수준

차시 학습 목표는 '글을 읽고 뜻이 비슷한 낱말과 반대인 낱말을 안다.'이며 활동 2, 3, 4는 모두 차시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재글의 일부 단어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활동 2에 따라 글을 읽으면서 낱말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용이하다. 마찬가지로 활동 3에서도 파란색으로 쓴 낱말들을 보고 뜻이 비슷한 낱말과 반대인 낱말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있다. 활동 4에서는 파란색으로 쓴 낱말과 그 외의 낱말들 중 뜻이 비슷한 낱말이나 반대인 낱말을 찾아보도록 하여, 활동 3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더 확장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제재 수준

활동 1은 그림책 제재라는 특성을 살려 본격적으로 제재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먼저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에서 남자와 여자의 한복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제재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하였다. 활동 2, 3, 4는 모두 본 그림책 제재의 글 부분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이다.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가 문법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본 그림책 제재의 그림은 읽기 전 활동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이외의 활동들은 그림이 배제되고 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습자 수준

그림책 제재의 글 부분에 파란색으로 쓴 낱말을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어, 학습자가 글을 읽고 이를 활동에서 활용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

지만 비슷한 말과 반대되는 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 교사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3과 같이 제재글의 파란색 낱말로 한정하여 활동을 한 후, 활동 4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뜻이 비슷한 낱말이나 반대인 낱말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도록 단계적으로 활동 순서를 배치한 것이 긍정적인 면이다.



3. 시사점

가. 국어 활동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

국어 활동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은 교과서에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교육에 그림책 제재가 활용된 경우이다. 그림책의 특성으로는 언어 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얼굴 표정, 인사말 등의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는 원작 그림책 내용 중에서도 언어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는 경향이 있다. <재미있는 내 얼굴>에서는 원작의 ‘약올리는 표정’이 교과서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하였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에서도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말들을 위주로 하여 부분적으로 수록하였다. 활동 측면에서는 대체로 언어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활동 구성이 보다 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그림책의 다양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하지만 모든 그림책 제재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니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언어 기능의 학습에 치중한 나머지 원작 그림책을 교과서의 그림책 제재로 수록하는 과정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그림의 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활동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나. 문학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

문학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은 교과서에서 문학 감상 자료로 그림책 제재가 활용된 경우이다. 문학 교육 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그림책 고유의 특성을 문학적 특성으로 간주하여 글과 그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단원 또는 차시 학습 목표 하에 그림책 제재가 활용된 경우이다. 또한 가지는 그림책의 고유의 특성은 약화되고, 글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인 아동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림책 제재를 활용한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그림책의 특성 중 글과 그림의 관계가 두드러지는 그림책을 그림책 제재로 활용하여 수록하고, 활동 측면에서도 글과 그림을 모두 파악해야 해결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도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적절하게 편집되어 그림책 제재가 구성된 경우도 있었으나, 글과 그림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아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활동 측면에서도 그림책 제재의 글과 그림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문법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

문법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은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 자료로서 그림책 제재를 활용한 경우이다. <기차 그림책>과 같이 원작 그림책이 한글 낱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그림책 제재로 활용한 경우도 있으나, 그 외에는 원작 그림책이 문법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 자료로서 활용한 경우들이었다. 문법 교육은 글이 가지는 규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림책의 글에 초점을 맞추므로, 글과 그림의 조화로 이루어진 그림책의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활동 측면에서 그림책 제재의 그림을 함께 활용하여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반드시 원작 그림책이 문법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에 따라 그림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림책 활용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림책이 어떻게 수록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이렇게 수록된 그림책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림책을 국어 교과서에서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그림책의 교육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림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의 원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림책의 활용 실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원작 그림책이 국어 교과서의 제재로 수록되면서 어떻게 변용되는지 살펴보고 수록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원작 그림책이 교과서에 수록된 형태인 그림책 제재가 국어 교과서에서 어떻게 교육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책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그 외적인 형태가 교과서에 맞게 변용된다. 이렇게 변용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 번째, 그림책의 전체 글과 그림을 교과서에 수록하였다. 두 번째, 전체에서 일부의 글과 그림을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세 번째, 두 장면 이상을 한 장면으로 합쳐서 수록하였다. 네 번째, 글과 그림의 관계가 잘못되어 수록한 경우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그림책 제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작 그림책과 그림책 제재를 비교하였을 때, 교과서의 틀에 맞추어 변용된 경우는 대부분이다. 하지만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변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변용된 그림책 제재가 더욱 적합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림책 제재가 수록된 경우도 있었다. 또는, 그림책을 적절하게 잘 수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활동이 그림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할 그림책을 선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에는 그림책의 특성,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충족한 그림책 중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다른 요건들에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에 비추어 교육적 의도로 그림책을 변용하여 교과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페이지 조절을 위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원작 그림책을 100% 완벽하게 교과서에 수록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적절하게 편집하는 것이 성취기준이나 학습목표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구잡이식의 그림책 수록이 아닌, 그림책을 교과서의 교육 자료로 선정하기 위해 논의와 고민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그림책 선정 및 수록을 위한 기준을 선정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그림책 제제의 학습 활동 구성 시, 그림책 제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림책 자체를 학습하는 문학 단원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단원의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가 그림책의 특성을 파악하며 감상하도록 요구하므로, 학습 활동 역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림책을 여타 다른 동화나 서사 문학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거나, 그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글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습 활동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점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다음 그림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책을 단지 그림이 있는 이야기 책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연구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림책은 글과 그림 모두 큰 비중을 지닌 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함부로 편집하거나 변용한다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원작 그림책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그림책의 특성이나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가장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국어 교과서라는 한정된 틀 안에 그림책을 담아내야 하며,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라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작을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를 가장 크게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의 과정이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새로운 교과서 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넓게는 교과서의 그림책 제제를 활용하여 국어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까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 (2012). 공익광고의 초등 국어과 교재 변용 연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욱. (2006).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2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97-124.
- 김수향. (2012). 초등미술교육에서 시각적 문해력 지도를 위한 그림책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미. (2014). 초등학생의 그림책 만들기에 나타난 의미 구성 양상 연구 : 글과 그림의 관계를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선. (2012). 그림책의 의미작용: 이중서술체계와 매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진희. (2012).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서사문학 작품수록 양상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지현. (2012). 이야기 그림책의 교육내용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숙현. (2006). 그림 읽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연순. (2010). 그림책을 활용한 국어과 통합교재 구성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선. (2012). 이코노텍스트의 관점에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Vol 18, No 2, 113-125.
- 신세니. (2011). 포스트모던 그림책 파라텍스트의 특성 및 기능 연구: 유아의 그림책 읽기 과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 신혜선. (2007). 기호학적 접근에 기초한 유아그림책의 의미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경화. (2014). 2009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의 의의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 14.
- 이영선. (2013).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교육 내용의 정합성 :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해리. (2009). 초등 1·2학년 국어 교과서의 동화 제재 연구 -학습 활동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덕연. (2001).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 : 원본과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미희.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초기 문자 지도 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선. (2005). '언어·텍스트·매체·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07-337.
- 최병철. (2012).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의 시 단원 학습활동 분석 : 2007 개정 중학교 7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근희. (2009).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서사문학 제재의 수록 양상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Nodelman, Perry. (1988). Words about Pictures :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김상욱 역(2011). 그림책론 :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 방법. 경기:보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현은자 외. (2004).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마루별
- 현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해 1,2. 경기:사계절.
- 황미해. (2007). 문학반응 활성화를 위한 그림책 그림 읽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교사용 지도서. (2013). 미래엔.
-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교과서. (2013). 미래엔.

A b s t r a c t

Analysis of Status of Use of Picture Books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 Focused o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for 1st and 2nd Grade
Cluster in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

Kang, Min-jeong

**Major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eon, Jae-eung**

This study analyzes how picture books are us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picture books. Picture books are characterized by the delivery of meanings of texts and pictures in integrated relations. Also, using picture books in Korean textbooks means: first, they are transformed into a form of materials for the textbooks; and second, activities are composed in order for students to learn the picture book materials. In other word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use of picture books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 cluster,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proper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and attempt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use of picture book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educational resources.

Chapter II investigates and reveal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and looks into the methods of composition of the elementary Korean textbooks. And it explores their values and plans for use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 picture book is a literary genre in which texts and pictures play their roles and deliver meanings in an integrative way. It is found that the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mentions these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based on achievement in the literature section. Also, depending on the method of composition of the elementary Korean textbooks, they have been reflected in the units in the textbooks with the other criteria for achievement. In addition, the ways in which picture books are used in Korean textbook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divided broadly into the section of Korean language activitie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ection and grammar sect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sections of the Korean textbooks

Chapter III analyzes the status of the uses of picture books in Korean textbooks.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the elementary Korean textbooks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 cluster in the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First, it looks into how the picture book materials have changed from the original picture book at the lev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s and pictures and para-texts. Also, the cases of the transformed into the picture book materials from the original picture books are classified. Second, the activities composed based on the picture book materials are analyzed. The

analyses of the activities are conducted on the levels of criteria for achievement and learning objectives, materials and learners. And the suitability of the activities is discussed at each level.

Chapter IV summarizes and organiz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 Chapter III. The types of transformation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icture books are divided broadly into four: First, a case in which they include all texts and pictures of the picture books; second, one in which they include some texts and pictures; third, one in which two or more scenes are combined into one; fourth, one in which texts and pictures do not match with each other. And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textbook activities using the converted picture book materials included are as follows: First, mostly a phased approach is made, focusing on meeting the criteria for achievement and learning objectives. Second, the activities in the literature section tend to use the texts and pictures in an integrative way while the other sections tend to use them separately. Third, at the learner level, the level of difficulty and the interest are properly com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are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including picture books in the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convert texts and pictures appropriately, so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xts and pictures, and between the pictures, or minimize the conversion.

Second, as criteria for selection of picture books to be included in textbooks,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and picture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hird, organizing the activities focusing on the multimodal characteristic and literary characteristic of the picture books will be used effectively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 are active studies of uses of picture books as educational materials for Korean language, and the 2009 revised Korean textbooks use various picture book materials.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use of picture books at the level of curricula and textbooks. Yet, the value of curricula and textbooks are revealed only if they are learned by teachers and studen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n analysis of cases of the uses of the picture book materials included in the textbooks in the scene of classroom and a study on the level of class like applicable models of instruction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Picture book, Picture book materials, Transformation of picture book, 2009 revised Korean curriculum, Elementary Korean textbook for 1st and 2nd grade cluster, Multimodality